
2019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9 ANNUAL REPORT

2017
2018
2019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ENTS

I 연구소 소개

- 006 설립목적
- 006 주요기능
- 007 경영목표
- 008 연혁
- 010 조직도
- 011 일반현황

III 2019년도 주요연구

기본연구

- 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II):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 016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 018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 020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 022 보육·유아교육 분야 일자리 수급 분석 및 확충 방안
- 024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와 지원 방안
- 026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의 비교 연구(II)
- 028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방안
- 030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 032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 034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 036 육아행복 국제비교 연구: 삶의 질 조사 중심으로
- 038 OECD TALIS 국제 유아교원 비교 연구 2019 - Strating Strong Survey 분석 -

일반연구

- 040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 042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I)
- 044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046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 048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
- 050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 052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II):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을 중심으로
- 054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II): 누리과정 개정에 따른 KICCE 유아관찰척도 개발 및 시범적용
- 05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 058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 060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II): 컨설팅 실행 및 과정 분석
- 062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연계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V): CARE 컨설팅 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 064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인식 조성방안 연구(I):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 06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 (한국아동패널 II)

수시연구

- 068 지속가능발전 SDG 4.2 국내 이행 전략 연구
- 070 유아 생활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 072 어린이집 개정누리과정 적용지원방안 연구
- 074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II)
- 076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인식 및 교육 현황 연구
- 078 아동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연구개발적립금연구

- 080 성평등 관점의 영유아 돌봄정책의 진단과 과제

| III | 2019년도 주요활동

주요행사

- 084 육아정책 심포지엄
- 085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 086 KAL 열린토론회 및 KAL 현장간담회
- 088 국제세미나
- 092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 093 2019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 육아정책포럼
- 095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 098 브라운백 미팅
- 099 업무협약

주요간행물

- 100 육아정책포럼
- 102 육아정책 Brief
- 103 Issue Paper
- 104 KICCE Policy Brief
- 105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106 육아정책연구
- 108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 IV | 2020년도 추진계획

- 112 2020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13 중점연구사업
- 114 2020년도 사업개요
- 119 2020년도 연구사업 총괄표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었던 2005년에 설립되어 보육과 유아교육,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과 평가를 통해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 육아문화 개선 등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초저출산을 장기간동안 경험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을 단순히 아이를 얼마나 낳는가를 나타내는 '양적 지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 낳고 키우기 얼마나 어려운 사회인가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영유아 보육·교육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육아정책을 선도해 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아이의 권리 존중, 일가정생활의 균형,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연구 성과가 국민, 현장, 연구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행복 육아 행복의 대한민국,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희



육아정책연구소는 2019년도에 특별히,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주제의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산모·신생아에서부터 영·유아, 초등학생에 이르는 돌봄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육아정책 전망, 다른 정책 분야와의 융합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폭넓은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아이행복사회를 위한 조건, 육아행복에 대한 국제 비교 등 ‘행복’을 주제로 한 연구, 장애영유아·아동보호시설 영유아·한부모가족·이주배경가족 등 돌봄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연구, 영유아보육·교육정책을 넘어서 육아친화마을, 육아존중사회와 같은 사회전반의 ‘혁신’적 노력을 제안하는 연구들을 선보입니다.

육아정책의 핵심인 영유아보육·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보육서비스의 질, 보육교사 관련 연구, 정책에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연구도 내실 있게 수행하였습니다.

양육비용, 육아물가지수, 보육·교육분야 일자리에서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 등 경제관련 연구와, OECD Starting Strong, UN SDG 4.2,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육아관련 국제연구도 여러분들에게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ANNUAL REPORT



연구소 소개

설립목적

주요기능

경영목표

연혁

조직도

일반 현황

-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지원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 육아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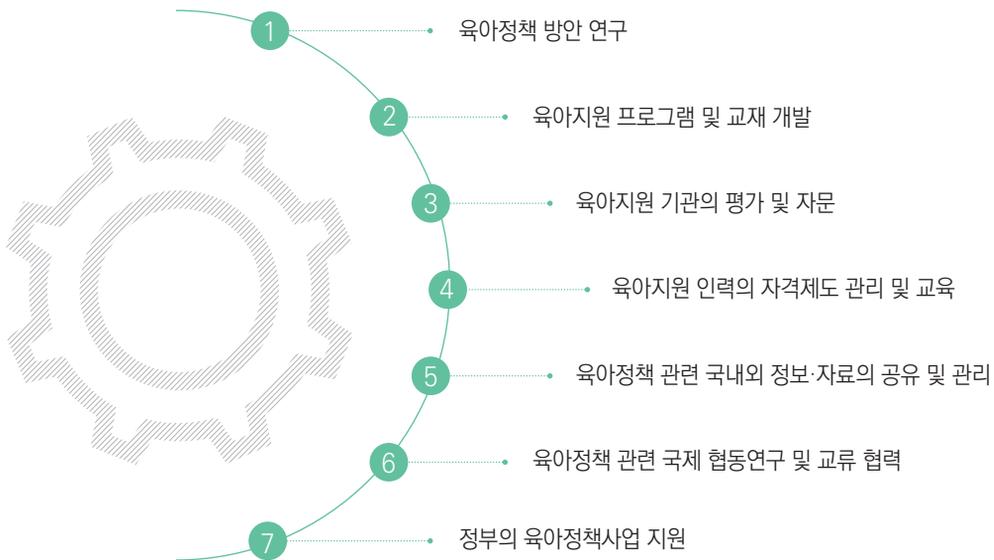
설립목적

PURPOSE OF ESTABLISHMENT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주요기능

MAIN FUNCTION



경영목표

MANAGEMENT GOALS

아이 행복, 육아 행복의 대한민국,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어하겠습니다.

설립목적

종합적 육아정책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

비전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사회를 실현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중장기 발전목표

미래시민을 함께
키우는 선도적
육아정책 연구기관

한국 육아정책
정보와 지식의
글로벌 플랫폼

소통·융합·상생
기반의 육아정책연구
생태계의 중심축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국책 연구기관

핵심가치

행복

소통

혁신

공정

공유

[경영목표] 추진전략

육아정책 연구영역 확대 및 정책 개발 선도

- 육아정책 아젠다의 선제적 발굴
- 인구 및 양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영역 확장
- 육아정책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

육아정책 연구의 글로벌 플랫폼 실현

- 육아정책 정보와 지식의 플랫폼 기능 구축
- 국제 육아정책 연구 정보 생산과 개발도상국 지원
- 한국 대표 국책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소통·공유·협력의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

- 산·학·연 및 다학제간 협동연구 활성화
- 국내외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 정책수요자의 연구 참여 및 성과 공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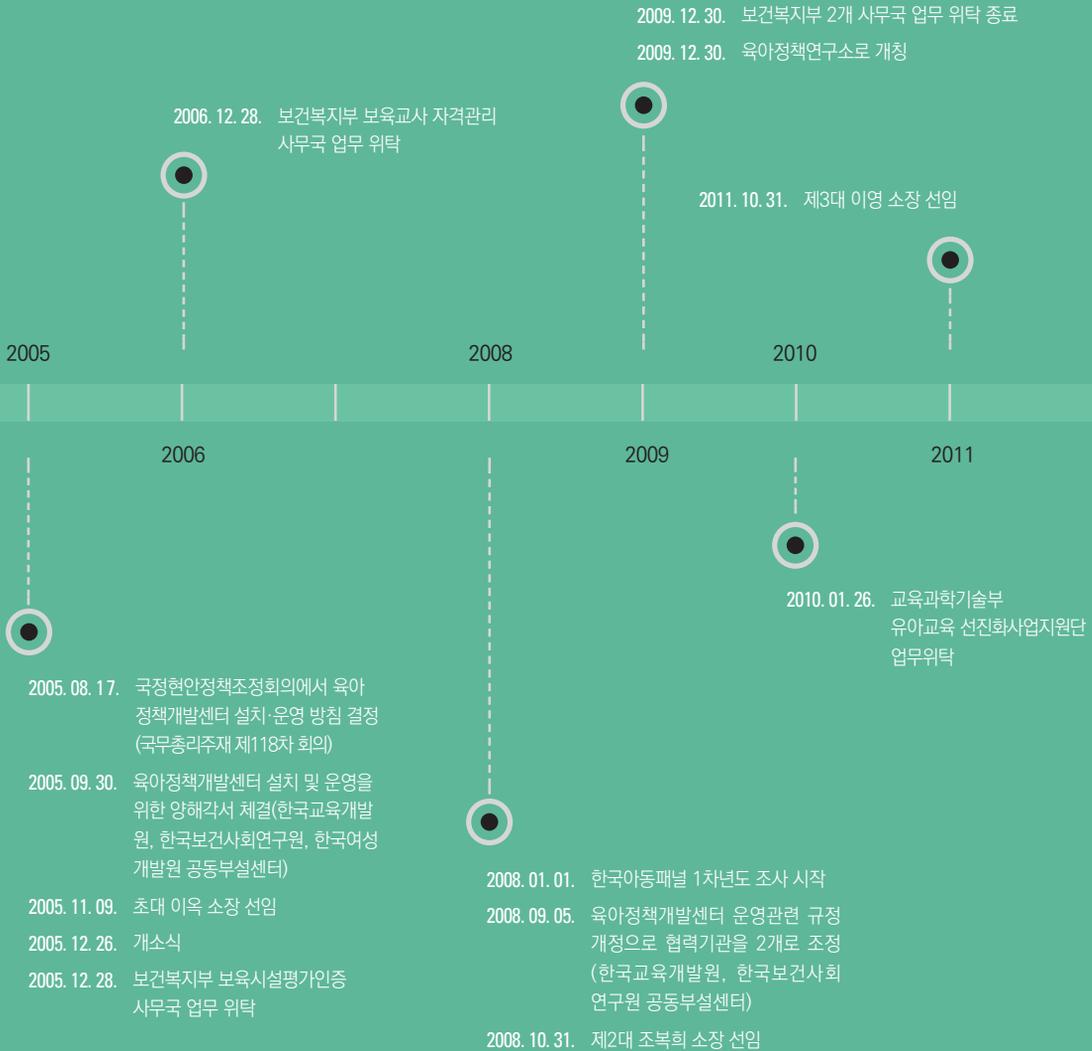
열린혁신 경영을 통한 행복한 일터 실현과 사회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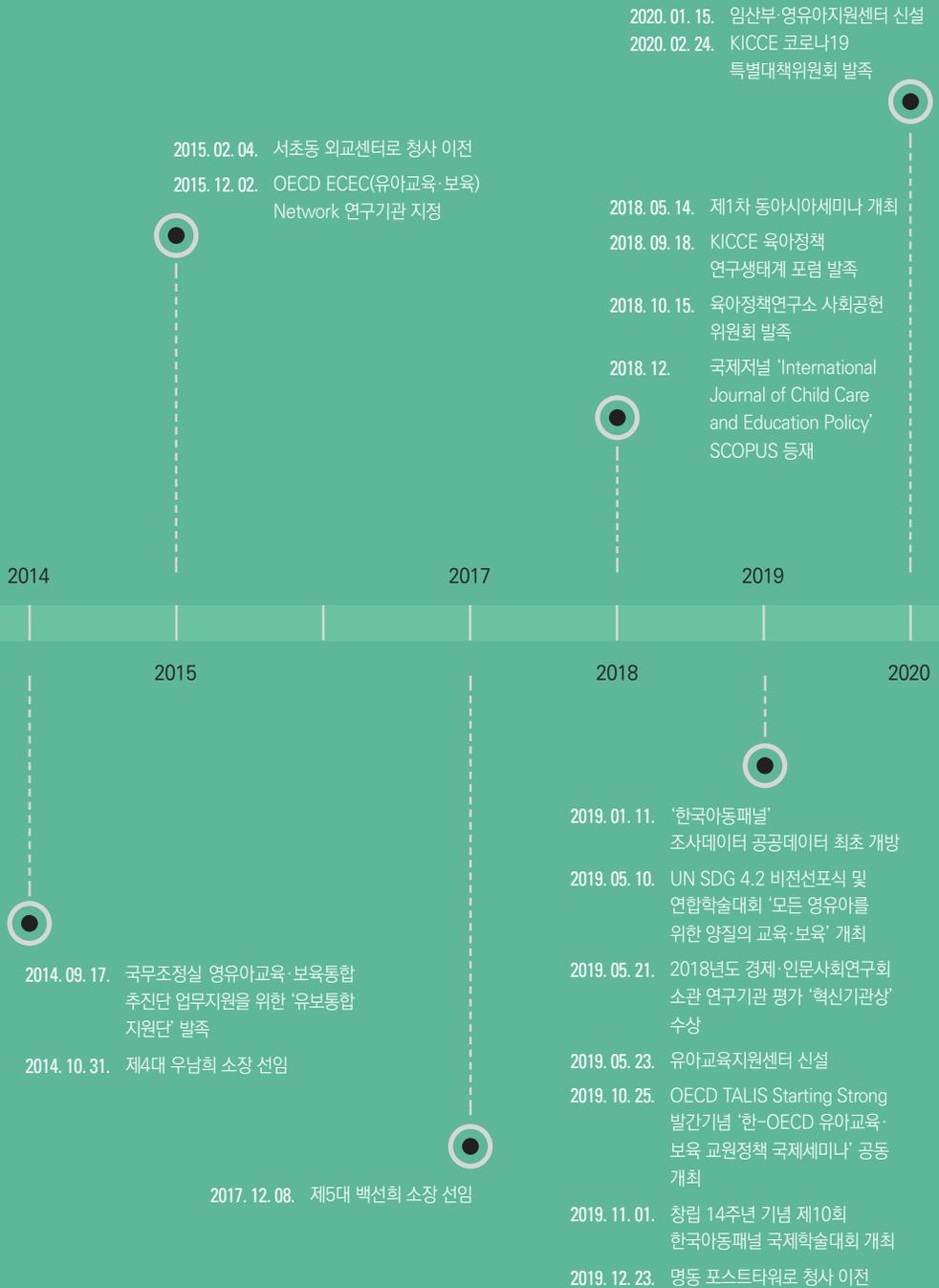
- 혁신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관리 효율화
- 신뢰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조직 문화
-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공헌 활성화

연혁

HISTORY

육아정책의 발전과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지난 15년간 힘차게 내딛어온 걸음,
국가미래를 향한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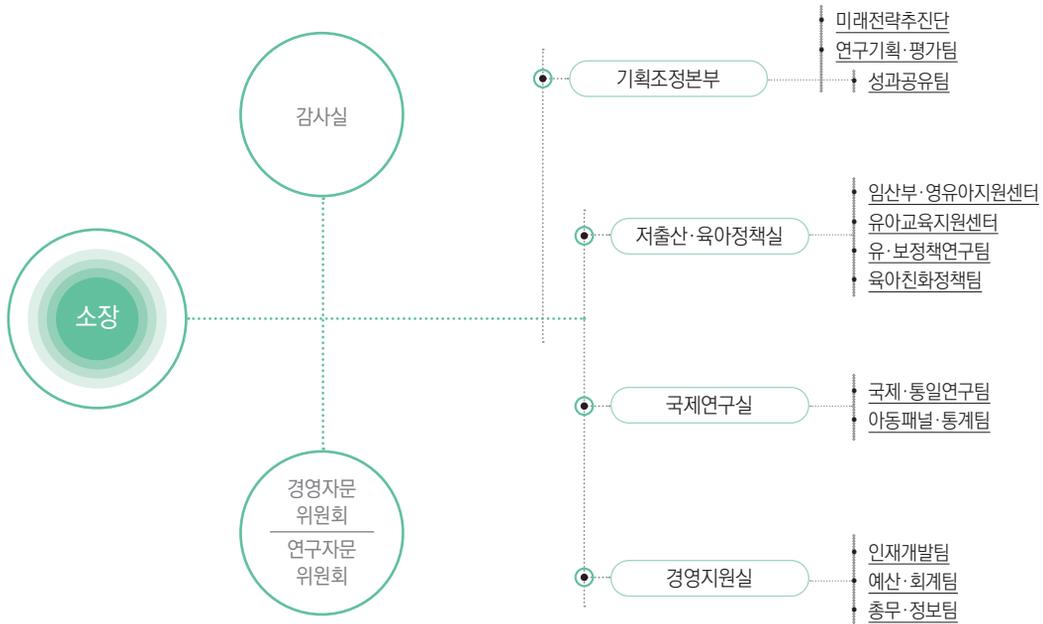




조직도

ORGANIZATION

연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1본부, 3실, 1단, 2센터, 9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

-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김영우(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 김태현(한국교원대 명예교수)
- 김혜영(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 변해정(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성영준(SBS 시사교양본부 PD)
- 양진욱(굿네이버스 회장)
- 오성수(롯데 대흥기획 상무)
- 오현석(아산회계법인 고문/공인회계사)
- 유선용(MK 컨설팅 대표)
- 이수연(한국위생검역연구소 대표)
- 이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정무성(송실사이버대 총장)
- 조경배(민주노총 자문위원,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 하중강(성공회대 노동이카데미 교수)

*가나다 순

연구자문위원회

- 강선미(하랑성전대연구소장)
- 김경철(한국유아교육학회장, 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교수)
- 김명순(연세대 아동학과 교수)
- 김영순(한국사회정책학회장,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김우창(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손인숙(건국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 송다영(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양혜영(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엄규숙(전 여성정책비서관/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우해경(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은기수(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미정(여주대 보육학과 교수)
- 이삼식(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 이완정(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 이정욱(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진주(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장)
- 조부경(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교수)
- 조성연(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
- 조형숙(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 진미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허 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나다 순

일반현황

*2020. 3. 31 기준

GENERAL

인원현황

*전체 61명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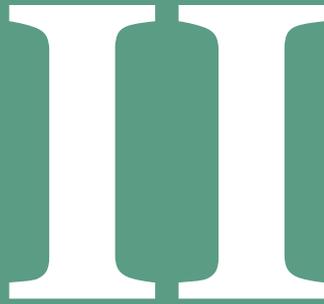


연구현황

*연구시작일 기준 | 단위: 건

- 기본연구과제
- 수시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2019 ANNUAL REPORT



2019년도 주요연구

기본연구

일반연구

수시연구

연구개발적립금연구

-
국가 육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본, 일반, 협동, 수시,
연구개발적립금, 수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II):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김은영, 강은진, 김혜진, 최혜영

배경 및 목적

- 2017년 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격차' 완화에 주력하고 있음.
 - 유아교육과 관련한 격차 완화 정책은 국정과제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로 명시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가 느끼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영유아의 놀이 형태와 질을 결정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이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격차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고,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과 이러한 로드맵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포커스그룹 인터뷰: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총 35인, 6회 실시
- 설문조사: 유치원 교사 372명, 어린이집 교사 374명, 총 746명 응답 분석
- 사례조사: 국내 유치원 8개원과 어린이집 16개소, 일본 유치원 2개원과 보육소 1개소, 핀란드 유치원 3개원과 지역 사회 보육시설 1개소
- 델파이 조사: 최종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46인, 유치원장(감) 26인, 전달체계 담당 전문직 18인, 총 90인의 응답을 분석
- 정책토론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결과

- 시설·설비 관련 규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설비 관련하여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음. 이 같은 이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규모와 입지, 실별 설치 기준, 놀이터, 안전 관련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음.



- 물리적 환경 차이에 따른 놀이 차이
 - 전반적으로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집단에 속한 유아들은 놀이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놀이에 참여 정도도 의미 있게 높았음. 반면 목적 없이 배회하는 행동은 덜 하였으며 놀이대상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었음. 실외환경에서는 마당이나 복합놀이터와 같이 넓고 움직임이 자유로운 공간에서의 놀이를 더 하였음.
- 국외 사례의 시사점
 -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가치를 추구, 물리적 환경의 우수성, 다양한 시설설비 보다는 그 환경을 활용하는 교사의 역량과 운영자의 철학 강조, 다기능적 공간 구성, 교사의 복지와 건강을 고려한 공간, 친환경적 자료와 에너지 효율 고려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격차 및 개선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적 기준이 다르므로 인한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기관 내에서도 설립유형이나 지역, 기관 규모, 설립연도에 따른 차이가 공존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을 평가해 보면 실내·외 모두 유아의 놀 권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실 권리 차원에서는 약간 낮았으며, 교사의 권리 차원에서의 평가 점수는 가장 낮았음.
 -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실내 대근육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실과 보육실의 최소면적 상향 조정, 실외놀이터 확보임.

정책 제언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하여 시설·설비 규정 개선, 관련 규정 개선, 자체 환경 개선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교사 전문성 제고의 5개 영역에 대하여 2020-2024 정책 로드맵을 제시함.
- 제도적인 측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설비 공통 기준 마련 및 적용, 현직교사 연수 및 교사양성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관련 교육 강화, 평가지표 개선 및 융통적인 적용,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제도 마련
- 행정적인 측면: 공간 활용을 위한 시도별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공간 활용 사례 및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물리적 환경 관련 연구 추진 및 결과 공유, 학습공동체 지원, 행정 관리 체계 일원화
- 재정적인 측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 지원, 공간 활용을 위한 컨설팅 재정 지원, 학급당 유아 수 조정을 위한 운영비 지원, 공간 확장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이용을 위한 인력 및 이동수단 지원, 지역별 부족한 인프라 충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추계를 함.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이윤진B, 유해미, 조혜주

배경 및 목적

- 변화하는 인구·사회변화 환경으로 인하여 2040년의 육아 환경은 현재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됨.
- 인구·사회 환경의 변화는 육아 형태 및 정책 수요자 욕구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미래의 육아 정책이 변화를 가능하고,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살펴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전문가 설문조사
- 수요자 설문조사
- 수요자 대상 정책숙의제법 적용

연구결과

- 2040년 인구·사회 환경의 변화 모습
 -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아동에 대한 투자가 주는 추세는 아닐 것으로 보임.
 - 가족 형태가 다양화 되고, 비혼, 동거 가구가 증가함.
 -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적으로 발전함.
 - 근로 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 여건의 변화, 근로 시간이 감소함.
 -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참가이 증가함.
- 전문가가 예상하는 2040년 육아지원정책
 - 무엇보다 돌봄 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의 발달을 활용한 육아 지원의 다양화가 예상됨.
 - 가족 구성의 다양화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통일이라는 변수에 대비해야할 가능성은 약간 보임.



- 정책 수요자가 원하는 2040 육아지원정책
 -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큼.
 - 굳이 기관을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아빠 육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돌봄 공백은 2040년에도 제1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정책 제언

- 2040년은 무엇보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육아정책의 방향도 과학 기술의 변화를 전제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내에서 육아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 환경의 변화로 돌봄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근로 시간의 지속적 감소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증가는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와 같은 국공립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시간의 유연적 사용 장소의 확대 등이 요구됨.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김나영, 황선영, 엄지원

배경 및 목적

- 영아 기관보육 활성화와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정책 방향이 상충됨.
- 개별성, 정합성, 통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연구방법

- 전국보육실태조사(2015, 2018)와 시간정책 실태조사 등의 선행 육아지원 관련 연구에서 영아 양육 관련 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함.
- 영아 양육 가구특성별, 이용 양육서비스별, 거주지역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전반 조사함.
-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전업모와 취업모를 포함한 영아부모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가구특성별 차별화된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과 수요에 대해 조사하고, 가정 및 기관 양육(지원)에 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분석함.
- 영아 양육지원의 방향 및 전략, 대상별 세부 지원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실시함.

연구결과

- 비용지원
 - 정책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정책을 적절하게 선별하여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 운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지원
 - 정책의 다양화 혹은 확대보다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질 향상 그리고 입소대기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 내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일부 정리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휴가 및 휴직지원

- 과거보다 남성들의 육아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바, 이들의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남성들의 육아관련 휴가·휴직사 용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향후 일정시점까지는 남성의 이 들 제도 활용을 보다 더 강제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 만 0세의 경우 '부모직접 돌봄 강화'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하여 정책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만1~2세의 경우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 포용'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함.
- 휴가 및 휴직지원 정책에서,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가구에 한하여 '긴급조퇴(결근)'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연 3~4회 사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방문(부모)교육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함.
- 장난감 및 도서대여 제공 장소 수와 제공 물품 확대를 위해서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주민센터와 지 역 정보문화도서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국공립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외에 영아기 양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 원 강화의 차원에서 '영아수당(가칭)'을 신설하여 비용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 해소 방안, 통합양육 정보서비스 플랫폼 을 부처에서 구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수요예측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취학 전·후를 중심으로

김근진, 박은정,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돌봄 지원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진학에 따른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른 돌봄 수요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유초연계와 연결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시 아동과 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때 아동과 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 및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돌봄 정책이 실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면담조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부모 및 관계기관 인사 20명을 대상으로 돌봄 요구 및 관련 제도적 쟁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초등학교 1학년 및 유치원·어린이집 5세반 아동의 부모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돌봄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표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 900명, 유치원·어린이집 5세반 어머니 300명으로 구성함.
- 통계분석: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 수 및 맞벌이 비율 등을 기준으로 초등 1학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함.
- 제도적 분석: 초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제도적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아동과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함.

연구결과

- 초등 1학년 돌봄 수요 통계분석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저위가정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저출산 추세로 인한 급격한 아동 수 감소로 인해 2030년에는 공급수준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2022년에는 이용률 40.2%로 가정할 시 공급은 수요의 82.8%로 추정되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므로 돌봄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1학년에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초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제도적 쟁점
 - 초등 방과후 돌봄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관리주체, 종사자 지위, 민간위탁, 수익자 부담, 행·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입법형태, 교육과 돌봄의 관계, 돌봄의 목적과 운영목표, 공간 확보, 이용대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초등 1학년 돌봄 면담조사 결과 분석
 - 초등 1학년 돌봄 면담조사 결과를 수요자 요구와 제도적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함.
- 초등 1학년 돌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 자격기준이 되지 않아서'와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가 있어서' 이외에도 서비스의 질, 이용 시간대, 자녀 의사 등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서 학부모들은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및 다양성이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책 제언

- 운영시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운영시간 차등화 및 연계강화 필요
- 인력관리: 초등 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돌봄 종사자들의 지위 및 인력 관리 개선 필요
- 공간 확보: 초등 방과후 돌봄에 사용되는 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 요구
- 법적 근거: 온종일 돌봄체계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법적 근거 마련
- 거버넌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요구
- 프로그램: 아동 및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필요
- 수익자 부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수익자 부담 확대 필요
-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장: 초등학교 수업시수 연장은 돌봄의 관점 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 방학 중 돌봄 공급: 방학 중 돌봄 공급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 필요

보육·유아교육 분야 일자리 수급 분석 및 확충 방안

양미선, 조용남, 최윤경B

배경 및 목적

- 보육·유아교육 분야 일자리 규모를 파악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을 분석하여 보육·유아교육 분야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질 개선 및 양적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연구방법

- 관련 법 및 제도, 어린이집·유치원(보육)교직원 관련 선행연구, 해외사례 등 수집하여 분석함.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육진흥원 협조를 얻어 보육교사 자격자 현황과 보육교사 임면보고 자료 등을 분석함.
-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 유형, 수행 빈도와 시간, 업무량과 수월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함.
-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및(보육)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보육·유아교육 분야 일자리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방향 및 방법, 조사 문항, 정책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연구결과

- 보육 분야 일자리 추정: 보육교사 수는 3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정함.
 - 시나리오 1은 어린이집 이용률과 교사 대 아동 비율(교사 배치 기준)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보육교사 규모를 추정함: 장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수는 2020년 168,479명에서 2024년 138,752명까지 감소하게 됨.
 - 시나리오 2는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였을 때 교사 수를 추정함: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높은 만3세와 만 4,5세를 각각 10명, 15명으로 조정한다는 가정 하에 담임교사 수를 추정함. 장래 담임교사 수는 2020년 176,871명에서 2023년에는 147,581명으로 15만명 선 이하로 줄어듦.
 - 시나리오 3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가정 하(0세 2명, 1세 4명, 2세 6명, 3세 10명, 4,5세 15명)에 담임교사 수를 추정함: 담임교사 수는 2020년 221,094명이며, 2022년에는 194,116명으로 20만명 선 아래로 떨어지고 2024년에는 183,204명 정도임.



- 연장반 전담교사 규모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기본 보육시간과 연장 보육시간으로 구분하고, 연장 보육시간 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할 경우 그 규모를 추정함: 연장반 전담교사 수는 2020년 36,860명 정도가 필요하나 2024년에는 29,433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 유아교육 분야 일자리 추정

- 시나리오 1은 학급 당 편성기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유아교육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교사 수를 추정함: 유치원 교사는 2020년 30,289명에서 2024년 22,535명까지 줄어듦.

- 시나리오 2는 학급 당 편성 기준을 현행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3세반 15명, 4,5세반 20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을 때의 교사 수를 추정함: 유치원 교사 수는 2020년 34,492명에서 2023년 3만명 이하로 줄고, 2024년에는 25,74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정책 제언

- 민간 부문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함.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추고, 유치원 학급당 편성 기준은 강화함.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대신 비담임교사를 배치함.
- 보육교사 및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재교육을 통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함.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이용률 40% 목표를 달성하여 공공 일자리를 확충해야 함.
- 교사가 보육·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원 및 청소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 실태와 지원 방안

박원순, 구자연, 김보미, 임다희

배경 및 목적

-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인 수는 2019년 1월 말 현재 1,691,608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주민의 장기적 경제적 효과는 162조 원으로 추정할 만큼 우리 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지대함.
- 한국은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하나 대부분의 정책이 한국 국적을 대상으로 함.
-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실태를 파악하여 이주아동의 안정적으로 양육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방법

-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documented)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과 그 가족을 연구 대상으로 함.
- 재정착 난민 4명, 난민인정자 2명, 인도적 체류자 3명, 유학생 1명, 이주노동자 2명 등 총 12명, 관계단체 관계자 총 3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함.
- 외국국적동포,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15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불어, 아랍어로 설문을 실시함.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안산시 소재 어린이집, 안산시 영유아 학부모 면담을 통하여 안산시의 이주배경 가족의 양육 지원 정책을 조사함.

연구결과

-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해외 정책의 시사점
 - 이민국가의 경우 이주배경 가족의 자녀의 시민권 획득이 용이하여 국적의 차이에 따른 차별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음.
 - 일본의 경우 무상보육·교육 정책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실태 설문조사 결과
 - 자녀의 주 양육자는 부모이나 급할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경우가 1/4에 달함.
 -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낮으며 이는 아버지의 장시간 노동에 기인함.
 - 이전보다 영유아 자녀의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이 높아짐.
 -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실태 심층면담 결과
 - 의료시설 및 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보건소 등에서의 외국인 지원이 더 충실화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자녀를 양육하기에 매우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
 - 주로 노동집약적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함.
 - 주거지를 결정할 때 자녀 양육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미인가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정책 제언

- 이주배경 가족에 대한 육아정책의 방향
 - 이주배경 가족의 육아정책의 기본 방향은 아동의 권리, 사회 통합적 관점, 이주배경 가족의 불가시성(invisibility) 해소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에 기반해야 함.
- 이주배경 가족 육아지원 방안
 - 이주배경 가족이 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이주배경 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보육·교육 지원체계 강화
 - 미인가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간접 지원
 - 이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지원
 - 이주민을 정책 조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영유아 자녀 가정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지원(유학생 50% 할인 참고)
- 주체별 이주배경 가족 육아정책 제언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의 비교 연구(II)

도남희, 최정원, 박은영, 소마 나오코(相馬 直子), 이연화(李蓮花), 김병철, 차저하오(蔡澤昊)

배경 및 목적

- 출산율 감소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인접한 중국과 일본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
- 3국 모두 과거에는 다출산 국가로서 출산억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져 저출산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3개년 연속과제 중 2차년도 연구로서 인구, 정치, 사회문화의 배경을 통해 한·중·일의 임신, 출산과 육아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세 국가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검토
- 자문회의 및 간담회
- 국외사례 수집(국외출장)
- 정책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 한국의 임신·출산과 육아정책
 -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확대되어 비혼모의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국가적 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요보호 아동에서 모든 아동에게의 정책 실행 가능성으로 높이고자 하나 아동정책은 수요자의 요구도 구체적이 않고 정책의 집행도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분명한 요구와 이를 파악하여 정책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함.
- 중국의 임신·출산과 육아정책
 - 출산수당의 개혁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와 여성 보건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인 출산과 출산 직후의 필수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생육보험의 차이의 해소가 더 요구됨.



-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보편적 아동복지 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정책은 매우 느린 편이고,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학령 전 교육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공적 학령 전 교육자원은 여전히 부족함.

• 일본의 임신·출산과 육아정책

- 직접적인 출산지원으로서 출산육아일시금과 사회보험료 면제, 불임치료비 경감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임신 시의 산모를 위한 통원휴가와 통근 시간 완화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제공되고 있음.

-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현금지원 정책이 일반 아동에서부터 한부모 가족과 빈곤·취약 아동까지 포괄하면서 확대·개편되어 왔으며, 보육서비스 대기 아동 해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정책 제언

- 한국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젊은 세대에 부합되는 대책이 필요하며 부모 및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함.
- 중국은 생육보험과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지역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료 인하 등이 요구되며 취약아동 중심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과 가정의 육아지원이 필요함.
- 일본은 임신과 출산 지원은 현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보육·교육 무상화에 따른 보육서비스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동시에 질적 관리도 요구됨.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아이행복사회'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방안

도남희, 이재희, 예한나

배경 및 목적

- 최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이혼가족 및 홀로 있는 시간의 증가로 인해 아이들의 보호와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많아지고 있으며, 가정 및 교육환경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늘어나 어린 시기부터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증가하였음.
- 2015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이후 아동 최우선 원칙과 행복도 증진을 핵심목표로 내세웠으나 아직 정부차원의 아동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부재함.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아이 행복이 연계되는 아이행복사회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에 활용하여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국외출장 실시
- 전문가 조사 실시

연구결과

- 국내·외 행복 지표 검토
 - 국내의 행복지표로서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한국의 아동정책 지표,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학교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지표 등을 검토함.
 - 국외의 행복지표는 UNICEF의 아동 웰빙 지표, OECD의 Doing Better for Children, EU의 아동 웰빙 지표, Child and Youth Well-being(CWI) 보고서 등을 검토함.
- 지속가능발전목표 검토
 - 2015년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 회의에서 17개의 SDG를 핵심으로 하는 2030 지속가능개발 아젠다가 채택되어 이어짐.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 식량확보, 건강한 삶, 양질의 교육보장, 성 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국가 간 불평등,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계 보호 등의 목표가 제시됨.



-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아이 행복

- 국내·외 행복 지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하여 영역별 중요성과 필요성을 조사하고 발달시기별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
- 아이행복사회 지표 영역은 물질적 수준 및 환경, 건강, 학습발달, 여가 활동, 안전 행동, 관계, 주관적 웰빙 등의 영역으로 구성됨.

정책 제언

- 공공기관이나 정부 주도의 아동 행복지표 개발과 이를 통한 국가통계가 필요함.
- 주로 10세 이상의 아동지표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영유아 지표 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향후 영유아 지표 체계 구성과 함께 구체적인 지표 작성 방법의 논의가 필요함.
- 지표의 효과적인 활용에 있어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가 필요함.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아동정책의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함.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양미선, 김은영, 염혜경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원인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시범사업의 현장적용성 및 정책화로의 타당성을 검토함.

연구방법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 및 제도, 선행연구 등을 수집·분석함.
-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누적·관리되고 있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함.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책, 기관-가정 간의 신뢰강화 방안, 교사 인권보호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등 관련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방향 및 방법, 시범사업 운영, 조사 문항, 정책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연구결과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및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의견
 -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원인이 아동 개인 요인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78.2%는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 유치원 교사 77.1%는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를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봄.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원인이 교사 요인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6.2%는 직무스트레스, 유치원 교사는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가 34.4%를 꼽음.
 -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환경 요인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48.7%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유치원 교사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50.8%를 지목함.
 -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일과시간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둘다 급식시간을 꼽음.
 - 원장 또는 동료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38.7%와 유치원 교사 42.4%만 즉시 신고한다고 답함.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교사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교사 중 26.4%만 동의하였고,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유치원 교사 중 44.7%가 찬성함.
- 교사 인권 보호 정도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9.7%, 유치원 교사 중 22.1%만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함.
-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지원 위한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 권리 민감성 향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이해 증진과 영유아인권 옹호자로서의 협력적 관계 형성 통해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둬.
 -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 총 408개소 중 시설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함.
 - 프로그램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함.
 -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뢰 관계 회복에 주안점 둬.

정책 제언

- 어린이집·유치원이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보다는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관점을 전환함.
- 아동학대 발생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부모 포함)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 발생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뿐만 아니라 교사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함.
-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CCTV 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
- 어린이집·유치원의 열린 운영으로 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를 강화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육·유아교육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함.
- 아동학대 조정위원회에 아동, 유아교육 전문가와 보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박창현, 김근진, 이은혜, 배율미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영유아의 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장애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연구방법

- 문헌분석: 통계청 장애인 등록 현황,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보육통계 등
- 설문조사: 전국 장애영유아를 둔 1000명의 부모 대상, 유효 표본 989명, 2019년 8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사
- 개별 및 집단 심층면담: 장애영유아를 둔 부모, 원장, 교사 대상 FGI,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담당 공무원 대상 면담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특수교육전문가,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부처 담당공무원 대상

연구결과

- 장애진단 후 도움을 많이 받은 곳은 장애영유아를 둔 부모들 간의 교류이며, 주 양육자는 어머니, 돌봄 시간은 평일 8시간/주말 14시간임.
- 장애발견나이는 만 0-1세가 50%, 장애 진단시 어려운 점 1순위는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기 어려워섬'임.
- 양육과정에서 장애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육체피로도(77%), 자녀 장래걱정(90%), 부모 우울(50%), 경제적 부담(73%), 비용 걱정(79%) 등의 경험을 하였음.
- 소아 낮병동 및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양적 확대 요청이 정책요구 1순위였음.
 - 지역의료시설의 불편 경험자 60%, 불편한 점 1순위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음.
 - 건강검진제도 개선 필요(80%), 그 이유는 '현행선별검사로는 정확한 장애선별이 어렵고', '지역의료시설에서 발달 및 치료 서비스를 정확하게 연계해주지 못하기 때문'임.
-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급) 이용자 어려움 경험(60%), 1순위 '등·하원 불편', 기관선택이유는 '통합교육을 원해서'임.
 - 복지관 조기교실 이용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가 용이해서', 어려운 점은 '치료나 재활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임.
 - 전체 응답자의 8.8%가 기관 미이용자로 '어린이 재활병원' 또는 '가정보육'을 하고 있음.



- 통합교육에 대해 60% 만족, 불만족은 '기관 부족' 때문임.
 -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인력 확충'이 가장 필요하며, 초등학교 특수학급 또는 학교로의 배치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기관 강화'를 중요하게 보았음.
 - 초등연계 및 학교 적응을 위해 필요한 1순위는 '학교 선생님의 이해와 배려'임.
 - 아동학대 경험자(5%)는 주로 방임, 정서학대를 겪고 있었음. 아동학대 예방 방법 1순위는 'CCTV 공개강화', '특수교사 인력확충'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50%가 사회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차별 내용 1순위는 '기관 입학 시', 2순위는 '보험 계약 시'였음.
 - 차별 경험 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은 없었고, 사회적 차별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

정책 제언

- 의무교육 기반 장애-비장애 완전통합형 유·보 통합 체제 구축
-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지역별 통합계획 마련
- 지역의 인구변화에 알맞은 완전 통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 조기 진단 및 발견에 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장애 영유아 교사 인력 충원 및 재교육 제도 마련
-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및 소득에 관계없는 재활치료 지원
- 장애 영유아 통합 통계 및 서비스, 시간, 비용 체계에 대한 통합연구 필요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최효미, 박은정, 김태우, 우석진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면서,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음.
- 본 연구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육아지원 분야 지원 정책의 재정 투자 규모를 살펴보고, 종합적 차원의 재정 투자가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행정 통계 및 패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함.
- 또한, 정책 우선 순위와 성과 분석을 위해 전문가 조사(AHP)를 실시하고, 재정 투자의 성과에 대한 수요자 인식 조사 및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함.

연구결과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현황
 -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중앙정부 재정투자에 시·도교육청 재정투자 유치원 지출총액을 더한 총액(1)은 2010년 4조 4,334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 13조 2,626억원으로 나타남.
 -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중앙정부 재정투자에 대표적인 시·도교육청 재정투자 사업인 유아교육진흥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더한 총액(2)은 2010년 3조 2,85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1조 8,867억원이었음.
 - 국비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에 시·도교육청 재정투자 유치원 지출총액,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합산한 총액(3)은 2017년 기준 17조 7,274억원으로 나타남.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의 주요 성과 지표는 자녀 양육부담 관련 지표로 총 4개 지표, ①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②교육보육비용, ③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 ④사교육비 부담 경감정도이며, 여성 고용 관련 지표로 ①기혼 여성(20~45세) 고용률, ②여성의 취업 여부임. 출산 관련 지표로는 ①초혼연령, ②초산연령, ③합계출산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의외로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포착됨. 이는 서비스 이용 확률의 증가에 따라 교육보육비 지출 가구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됨.
 -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고용률 제고 효과를 분석한 다층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1인당) 육아예산규모의 경우에는 양의 방향성을 보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육아예산의 지원 규모에 따라 지역의 여성 고용률 자체가 제고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예산자료(2012~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동적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은 여성의 초혼 및 초산연령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합계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유아교육 지원 정책이 출산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의견
 - 대국민 인식 조사는 총 1,055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연령, 자녀 연령 및 지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집함.
 -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한 육아정책 분야(중복응답)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 분야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질문한 후 응답의 평균을 도출한 결과 9.9세, 약 10세까지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육아정책 재정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에게 실시한 AHP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액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돌봄 취약 계층 지원 분야로 전문가들은 한부모, 다문화, 장애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됨.

정책 제언

- 정책 목표 변화에 대응한 재정 투입 재구조화,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지원 강화,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모색, 비용 지원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육아지원 정책의 지역별 격차 축소 필요, 신뢰성 있는 육아정책 재정 자료 구축 체계 마련,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체감도 증진 필요 등을 제언함.

육아행복 국제비교 연구: 삶의 질 조사 중심으로

이재희, 박창현, 박은영, 최지에

배경 및 목적

- EU의 삶의 질 지표를 토대로 한국 부모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 국제 비교를 실시함.
- 자녀 양육 시기의 부모의 행복, 삶의 질을 진단하고 양육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 전반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 목적임.

연구방법

- 국내·외 육아행복, 부모 행복,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육아행복, 삶에서 자녀의 가치, 자녀양육시기에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분석
- 부모의 삶의 질 조사 실시 및 EU 국가와 비교
- 국제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족 정책과 육아정책의 개선점 모색

연구결과

- 육아행복과 삶의 질
 -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울증,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부부 역할 갈등 등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적으로 UN의 인간개발지수(HDI),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 유럽연합의 삶의 질 지표, 유럽의 삶의 질 조사, OECD Better life index, USnews 삶의 질 지표 등이 있음.
- 한국 부모의 삶의 질
 -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 중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 행복도, 정신/건강 웰빙 수준이 낮았으며 즐거운 할 시간 부족, 중요한 문제의 대처의 어려움, 잘못된 일에 대한 회개 어려움, 우울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이 높음.
 - 보육만족도와 비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만족도 낮았고 보육 비용도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
 - 심층면담 결과, 한국 사회 교육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심하게 경쟁적인 교육 구조와 과정, 이로 인한 사고 사교육 문제, 교육 비용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음.



• 부모의 삶의 질 국제비교 결과

-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은 1위였으며, 1인당 GDP는 13위,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31위, 출산율은 30위였음.
- 삶의 질 하위 요인의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웰빙 32위, 생활수준 22위, 주거 32위, 건강/정신 웰빙 34위, 일·가정양립은 29위였음.
- 공공서비스 질 하위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9위, 보육의 질 18위, 보육 비용 31위, 교육의 질 30위였음.
- 사회 질의 하위요인 국제비교 결과, 사회적 불안정성은 17위, 신뢰 및 갈등은 33위, 자녀 돌봄 분담 26위, 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은 9위였음.
- 환경의 질 하위요인 국제비교 결과, 지역사회 환경문제 34위, 편의시설 접근성 10위, 치안 13위였음.

정책 제언

-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목표, 과제들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으로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과 삶의 질 하위 요인들과 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근로시간이 높을수록 삶의 질 요인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에 더 무게를 두어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회주택 확대 등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 강화가 필요함.
-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부분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직업불안정성인 만큼 자녀 가구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육아휴직 사용 등 일·가정양립 문제는 기업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출산·양육 친화 기업의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야함.

OECD TALIS 국제 유아교원 비교 연구 2019 - Starting Strong Survey 분석 -

김은설, 박진아, 이솔미

배경 및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아동의 공평한 출발선과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보장과 초중등 학교에 비해 열악한 교직 및 근로 환경에 처한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의 개선을 위해 영유아 교원 국제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3S) 사업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최초 국제기구에 의한 ECEC 실태조사 국제비교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참여 9개국 중 하나로서 교원 관련 지표에서 국제적 위치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본 보고서는 OECD의 국제 보고서와 별도로 국내 자료를 분석하여, 국제비교뿐 아니라 국내 조사 자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 교사의 응답 경향을 해외 국가와 비교해보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 문헌 자료 검토
- 전문가 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OECD TALIS 3S 운영 컨소시엄과의 지속적 업무 협의
- 국가 간 데이터 분석 방법 공유: OECD 주최 워크숍 참석
-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 OECD와의 협력: 보고서 초안 검토 의견의 제출
- 결과 발표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과정적 질
 - 주당 근무시간 중 유아와 대면하여 일한 시간만을 살펴볼 때, 65.9%가 40시간 이상을 유아와 대면하여 일한다고 응답함.
 - 우리나라 교사는 다른 국가의 경우보다 아동 간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 공감을 위한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교사 주도보다는 지원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많이 함.



- 교육·보육 기관의 특징
 - 우리나라는 유아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기관이 자리잡고 있다는 응답이 9개국 중 6위 수준으로 나왔는데,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
- 원장과 교사의 특성
 - 원장과 교사의 특징으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에 다양하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적자원관리, 형평성과 다양성 증진 등 항목의 교육에 대한 원장의 요구가 많았고 초등학교와의 협력 측면에서는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왔음.
 - ECEC 교사직에 관해 유아들은 나를 교사로서 존중한다(27.5%)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급여에 만족한다(22.4%)는 응답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집단 내에서의 공정성과 다양성
 -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다양한 문화와 집단에 대응하는 교육적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50~60% 수준에서 대부분 응답하고 있음.

정책 제언

- 모와의 관계가 교사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부모교육 등을 통해 신뢰하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초등학교로의 전이(transition) 문제가 주요과제로 다루어져야 함.
- 유아교사의 근로조건 향상이 필요함.
-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함.
- 교사가 가진 업무 부담 중 특히 유아의 활동이나 발달과 관련하여 기록하는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이정림, 최정원, 최윤경B

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부모로부터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보호필요아동이 원가정 복귀전이나 자립이전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나 사람으로 지칭함.
 - 이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로 아동보호시설의 범위를 설정함.
-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환경적인 상황 및 양육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원가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연구방법

- 국내·외 아동보호시설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전달체계 등의 분석을 위한 문헌연구
- 총 8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아동양육시설의 영유아 담당 보육사 263명 대상 설문조사
-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종사자 및 기관장을 포함한 총 36명 심층면담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 15명 대상의 애착표상(MSSB) 검사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방문

연구결과

-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특성
 - 종사자 배치 현황이 0~2세는 평균 4.2명, 유아는 평균 4.8명,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 평균 8.0명으로 나타나, 영아의 경우 법정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보호필요아동 발생원인은 영유아 모두 베이비박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1순위 기준 영아 82.1%, 유아 72.3%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유입됨.
 - 원가족과 교류 여부에 대해서 교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영아 89.5%, 유아 87.3%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 거주 영유아들이 원가정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및 가정위탁의 어려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복권기금 사업이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가정위탁 배치에 소요되는 시간,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의 어려움이 있음
- 유아 내적 표상 검사(MSSB)를 통한 발달 특성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불안' 수준, '회피/위축' 수준, '비조절된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가정에 위탁된 일부 유아의 경우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 뿐 아니라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노 표출 행동은 없었음.

정책 제언

- 장기적이고 내실화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유기되는 영아가 가능한 한 위탁가정 등으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 대 보육사의 배치 기준에 따른 보육사 배치 현실화, 영유아 담당 보육사 배치 전 사전 교육 의무화, 양육시설 기능과 역할 전환 지원을 통한 탈시설화 추진
-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양육시설 중앙기관을 구성하여 포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정 후견인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전문 위탁가정 풀(Pool) 마련
- 아동보호시설 영유아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종사자(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I)

김동훈,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육아정책 여론조사 및 국민 인식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육아정책 및 육아관련 여론과 인식의 추이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모니터링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을 통해 육아정책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한 관련 기본계획, 업무보고 자료,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분석함.
- 대국민 여론조사
 - 전국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3,000명을 비례표집함.
 -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고, 여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함.
- KICCE POLL 홈페이지 운영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연구결과

- 부모됨, 결혼 및 자녀 양육관
 -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4점 중 3.22점),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짐(60대: 3.43점, 50대: 3.35점 vs 20대: 2.89점, 10대: 2.92점).
 -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4점 중 3.47점),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동의정도를 보임.
 -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4점 중 3.53점).
 - 이상적인 자녀 양육분담은 어머니 5.60 : 아버지 4.40, 가사분담은 어머니 5.67 : 아버지 4.33이었고, 실제 자녀양육은 어머니 6.65 : 아버지 3.35, 가사분담은 어머니 6.60 : 아버지 3.40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더 컸음.
 -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이 37.8%, 양육비용에 부담이 28.7%로 상당부분을 차지함.
- 육아행복감
 - 자녀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는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34만원이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55.8%가 찬성하는 입장, 21.9%가 반대하였으나,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키즈 찬성 비율이 낮고,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찬성비율이 더 컸음.

•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

-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남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을, 여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정부의 육아지원 재정지원 우선순위에서는 차별적 지원(50.1%)이 전체층 무상지원(4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처벌 강화와 교육,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에서는 처벌 강화 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대에서는 교육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금에 대한 추가부담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아지고는 경향을 보임.

- 우리사회는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다는 비율이 24.4%, 안전하지 않다가 35.9%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5점 중 3.01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이 기혼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았음.

정책 제언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부부 간 역할이 동등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 간의 역할분화가 지속되고 있어, 자녀양육 및 가사에서 성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확산이 요구됨.

• 무상보육과 교육, 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이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됨.

•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요구됨.

• 정책의 핵심수요층인 영유아 가정 입장에서는 여전히 보편적 무상지원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높으나, 국가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육아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설계의 차별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및 처벌을 강화하고, 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연령대가 낮은 세대가 향후 정부 육아지원 정책의 수요자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집행이 필요함.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최윤경, 김나영, 이혜민

배경 및 목적

- 2019년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 2년이 경과한 시기로,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 등을 검토하여 국정 운영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임.
- 5년 연속과제로 진행되는 이 연구는 지난 2년 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육아정책의 계획과 수립, 추진과정 등을 분석함.
- 육아정책의 분석과 과제(II)는 무엇을(육아정책의 범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성과평가의 틀과 지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황 대비 추진이 미약한 육아정책 과제에 대해 제언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육아정책 범위와 정책 (재)구조화. 부처별 육아정책/사업에 대해 2018~19년 9월 시점까지 달성도(output) 평가
- 설문조사
 -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육아정책 성과(outcome) 평가 실시(총 106인 참여)
 - 전국 영유아 및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육아정책 평가 실시(총 1,013명 참여)
- 심층면담: 육아정책 수요자 집단(영유아 부모, 초등자녀 부모,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심층면담
- 정책효과 계량분석: 저출산-유아교육·보육·돌봄-아동 정책 성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연구결과

- 육아정책 국정과제 달성도 평가
 - 8개 핵심과제 중 2개(유아 학습·휴식 시간 보장-달성도평가 보류,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미달성) 과제 미달성
 - 6개 달성: 아동수당 제도 도입, 국공립기관 이용률 제고, 온종일돌봄체제 도입, 일가정양립 일상화(남성 육아휴직 등 제도도입 달성),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립,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유아 놀이보장 누리과정 개편
- 육아정책 성과평가
 - ▶ (전문가 평가) 국정과제 17개에 대해 7점 평균 3~4점대(보통 수준)로 나타남.



- 성과 우수: '아동수당의 도입과 연령 확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편',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순으로 나타남.
- 성과 미흡: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 '아동의 웰빙/행복',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부모의 육아행복감', '부모의 육아권 보장'의 순으로 나타남.
- ▶ (수요자 부모 평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응답률이 10% 이하로 수요자가 체감하는 국정과제 평가 결과, 평균 '못하는 편'으로 나타남.
 - 성과 우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의 순임(1+2순위 중복응답 기준).
 - 성과 미흡: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아, 성과가 우수한 과제임과 동시에 미흡한 과제임. 그 다음으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육아친화적이고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의 순으로 나타남.
- 육아정책 효과 계량분석
 -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 육아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달성도평가가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시간지원'과 '건강/의료지원'의 경험이 정책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시간지원의 실행력 강화: 시간지원 수혜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보완
- 현금지원의 면밀한 효과성 검증과 현금서비스 지원 간 다층적 설계
- (취학전 영유아기 대비) 초등시기 다양한 수요 충족과 양질의 우수한 프로그램 및 환경 공급
- 미래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아내는, 육아정책의 비전과 어젠다 제시
- 저출산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및 집행/전달체계 개선: 중앙-지방정부 역할 설계, 주요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전달 체계 정비
- 온종일돌봄체계와 국공립기관 확대 추진 방식에 대한 재고
- 육아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의 소프트파워 강화: 정책 수행 및 전달 과정의 질적 전략의 중요성
- 포용정책 성과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 대상 집단의 확대 지속
- 지역간 격차, 사교육 이용, 인프라 문제를 적극 고려하는 육아정책의 추진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최효미, 장혜원, 김태우, 고영우

배경 및 목적

- 아동수당의 도입 등으로 육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과 육아 소비지출에 어떠한 파급을 가져왔는지를 고찰해볼 필요성이 높음.
- 1차년도 연구 결과 등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용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심층 분석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 육아가구 대상 조사인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진행함.

연구결과

- 2019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 실태
 - 2019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은 332만 6천원으로 1차년도의 311만 9천원에 비해 소폭 상승함.
 -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양육비용은 다소 늘어나 월 평균 총 양육비용은 126만 5천원이었으며, 영유아 양육비용은 92만 6천원,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이 66만원이었음.
-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육아가구의 의견 및 요구
 - 아동 수당을 받은 육아 가구가 아동수당을 주로 활용한 비목은 1순위 응답 기준 식비(29.0%), 교육/보육비(24.1%), 저축 등 금융상품(21.3%) 순이었음.
 -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지원에 따른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음.
 - 육아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한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한 정책 인지 자체가 매우 낮은 편이었음.
 - 향후 확대가 필요한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순위+2순위 응답 기준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의 확대,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원의 확대가 매우 높은 지지도를 보였음.
-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
 - 분위회귀분석 결과, 총 생활비 지출에 대한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총 양육비용의 경우와는 달리,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용 지출액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자녀수는 증가할수록 양육비용 지출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양육비용 지출 비목별로 분석결과에서는 식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등에 해당하는 양육비용 지출의 경우에는 가구소득탄력성이 지출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1차년도 조사의 조사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는 방식의 가구 패널조사 방식과 조사구 패널조사 방식을 접목하여 진행됐음.
 - 2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1차년도 원표본 전체와 추적조사 실패 시 대체되는 대체표본 가구,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출생아로 구성된 신규표본 가구 등임.
 -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기존 1차년도 원표본에서 1,243가구를 추적에 성공하였고, 405가구를 이탈 표본에서 대체하였으며, 추가로 254가구를 신규 조사하였음. 결과적으로 2차년도 전체 표본은 1,902가구임.

정책 제언

- 육아 가구의 보편적 비용 지원에 대한 강한 정책적 요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관된 정책의 효과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보편적 비용 지원을 확장해 감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저소득 육아 가구 기준 상향 조정 필요, 자녀 장려금 등 현금형 세액 공제 제도 강화 등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육아 가구 지원 강화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단계적 검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등 양육비용 지출실태를 감안한 초등학교 자녀 지원 방안 모색
- 공보육·교육서비스 질 제고 필요,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 재구조화,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

박진아, 김영민, 최지혜

배경 및 목적

- 영유아 가구에서 소비하는 육아품목의 패턴 변화는 빠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1~2년 사이에도 육아필수재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육아품목의 가격 변동과 영유아 가구의 소비패턴 변화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정책효과 분석의 한 방법으로 정부의 보편적 육아지원이 영유아 가구와 시장에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육아물가지수’ 산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정부지원정책이 실제 영유아 가구에서 소비하는 육아품목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자료분석
- 육아물가 시장조사
-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 육아 소비트렌드 분석

연구결과

- KICCE 육아물가지수 산출
 - CPI 방식으로 산출한 KICCE 육아물가지수(II)는 2018년 100을 기준으로 2019년 102.56으로 전년대비 2.56% 상승함.
 - 다양한 가격분포의 상품군, 유통채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고가 상품군과, 베스트 상품군, 저가 상품군의 물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KICCE 육아물가지수(III-1)은 전년대비 9.61% 상승함.
 - 베스트 상품군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3.52%로 나타나 통합 상품 지수보다는 물가상승률이 낮고 CPI 방식의 지수보다는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부모 체감 물가 산출
 - 전반적으로 영유아부모가 체감하는 육아물가에 대한 부정적 체감이 높게 나타남.



- 표본이 변화한 2018년 이후 2차년도 조사인 올해는 2018년 체감지수와 비교하여 서비스재의 가격체감을 제외한 소비재, 내구내의 가격체감/가계부담과 서비스재의 가계부담 수준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9 육아 소비트렌드 분석
 - 패치육아: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의 정성으로 완성되는 전통적인 육아방식과 다르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 소비하는 육아스타일을 의미함. 하위 키워드로는 '서비스 패치'와 '아이템 패치'가 있음.
 - 위주시대: 가족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며 아이중심적인 문화에서 모두의 행복을 지향하는 가족중심적인 육아문화를 추구함을 의미함. 하위 키워드로는 '근사한 엄마'와 '아빠 육아'가 있음.
 - 따로 또 같이: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최적의 육아법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 혹은 다른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흡사 같이 키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추구함을 의미함. 하위 키워드로는 '내 손안의 전문가: 테크 투게더'와 '네트워킹 육아'가 있음.

정책 제언

- KICCE 육아물가지수 산출의 지속성을 위한 제언
 - 지수 산출 개별 항목의 조사품목 업데이트를 자주 실시
 - 국가승인통계로의 전환이 필요
- 지역별 보육료 상한액이 다른 상황에서 매해 인건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어린이 집에서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
- 국가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
- 정책 설계에 있어 영유아 가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 강화 필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이정림, 구자연, 김한솔

배경 및 목적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차년도에 걸친 중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영유아 및 초등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요구 등에 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장기적인 정책 대응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영유아기-취학 전환기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변동 및 대응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초등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영유아 및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하여 육아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전망 등을 통한 육아서비스 공급 정책 방안 마련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연구방법

- 영유아 및 초등입학기 아동이 이용하는 교육·보육 및 돌봄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및 육아서비스 이용 관련 정책 변화 검토
- 2019년도 소비 실태 조사: 영유아 및 초등입학기 가구와 해당 아동 특성별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및 비용, 희망하는 이용 서비스 및 실제 이용 간의 간극, 육아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및 요구 등을 분석
- 2019년도에 새롭게 추가되는 초등 입학 자녀 대상 설문 문항 검토를 위한 전문가 대상 자문
- 영유아 및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주양육자 대상의 심층 면담
- 육아서비스 공급자 대상의 간담회

연구결과

- 영유아의 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
 - 자녀가 만 1~2세 때는 '부모 직접 돌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4.6%, 80.3%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만 3~5세는 '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1%, 73.9%, 66.0%로 가장 높았음. 만 6세는 유치원 이용을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66.2%로 가장 높았음.
- 어린이집 이용 이유
 - 맞벌이 가구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부모가 직접 돌봄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외벌이 가구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39.9%로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부모가 직접 돌봄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학원 이외 기타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5점 척도 기준 키즈카페 3.7점, 공공부문 육아카페 3.8점,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이 4.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 학원 이용 비율이 81.0%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가 직접 돌본다' 74.4%, 방과후학교 이용 62.7%로 나타남(복수 응답).
- 육아서비스별 정책 개선 요구
 - 학교 연계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은 '초등돌봄교실확충'이 3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봄프로그램 개선' 22.2%, '초등돌봄교실시간 확대' 21.0%, '물리적 환경 개선' 9.1%, '인력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감축' 5.9% 순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관련 정책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가 24.5%로 가장 많았고,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및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각각 21.3% 순으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및 내실화, 지역사회 기반 돌봄 기능 강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통한 초등입학 자녀 가구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공공부문 육아지원 프로그램 제공 확대 등을 통한 공공부문 육아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제공확대
- 영아와 유아/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에 대한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다양한 돌봄 지원서비스 제공
- 놀이에 대한 부모교육 제공, 공보육·교육 활성화, 아동을 위한 문화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아동의 놀이권 보장
- 여성의 육아휴직 보장 문화, 남성 육아휴직 제도 강화 및 보완, 초등입학시기 3~4월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모 자녀양육 특별휴가 등 사용 허용과 같은 시간지원 정책의 내실화
- 현금지원 정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등을 통한 현금지원 정책 내실화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II):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을 중심으로

최은영, 이윤진B, 김보미, 장은미, 김미옥

배경 및 목적

-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전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의 부족 및 교육 장소로의 취약한 접근성, 다양한 가족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내용의 한계로 인한 부모교육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부모들이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적 전환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전통적인 가정형태를 기준으로 제작된 기존의 부모교육의 틀과는 다른 형태의 부모를 위한 부모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4개년 연구 중 2차년도 연구로 한부모와 재혼 가정을 대상으로 함.
 - 이에 한부모 및 재혼 가정 부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

연구방법

- 한부모 및 재혼 가정 관련 정부정책 자료, 관련 통계 및 법령, 기 개발된 부모교육 자료와 선행연구를 분석함.
-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의 부모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교육 요구도 조사를 실시함.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가족특성 및 대상별로 시범 적용하여 시범 적용 중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연구 설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사례조사 대상 검토 등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협의 과정을 거침.

연구결과

-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 한부모 가정의 부모교육 요구를 살펴보면 교육 내용 면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소통 및 자녀와의 놀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는 같은 상황의 부모들이 모이는 공간이 77.4%로 가장 높았으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택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음.
 - 재혼 가정은 자녀 출산 후 부부 간 역할 분담 및 역할 갈등 개선이 37.5%로 높았으며, 부모교육의 적절한 장소는 같은 상황의 부모들이 모이는 공간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부모 가정 부모교육 시범운영
 - 유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유아기 자녀의 발달 이해와 함께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대화 및 놀이를 통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둬.
 - 한부모들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 중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스템 제공이 필요함.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시간이나 캠프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진하는 교육 내용도 반영되어야 함.
- 재혼 가정 부모교육 시범운영
 - 재혼 가정 부모들의 역할긴장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재혼 가정의 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둬.
 - 보다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재혼 가정에 접근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정책 제언

- 부모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병행
- 개별 가구에 특화된 부모교육의 세부 내용 개발
- 교육과 상담, 가구 방문의 적절한 구성
- 부모교육 참여 유인책 마련
- 부모교육 방법과 시간의 적절성 검토
- 정부 지원과 의무 부모교육 연계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II): 누리과정 개정에 따른 KICCE 유아관찰척도 개발 및 시범적용

강은진, 이미화, 예한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누리과정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KICCE 유아관찰척도를 개발해 보급하기 위해 수행된, 2차년도 연구임.
- 2019년 7월 누리과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과정에 기초해 유아관찰척도를 개편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해외 유아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유아관찰척도 타당성 및 사례 발굴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워크숍
- 조사연구 수행
 - [연구 1] 개정 누리과정 시범 적용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개정 전 누리과정 적용 일반 기관 3, 4세 담당 교사와 유아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 실시
 - [연구 2] 개정 누리과정 시범 적용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담당 교사에게 개편된 유아관찰척도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

-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방식이 달랐음.
 - 홍콩과 싱가포르는 학문중심적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함.
 - 영국과 호주는 교육과정의 학습목표 성취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함.
 -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은 유아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함.
 - 개정 누리과정의 변화에 따라 평가에서도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가가 제시됨.
- 개정 누리과정 시범기관 여부에 따라 유아관찰척도의 경향성, 유아 창의성향, 교사의 교수 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사의 놀이성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봄.
 - 유아관찰척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높은 점수로 상승하였음.
 - 3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4세 유아에게서 사전조사에 비해 사후조사에서 창의성향의 점수가 상승하였음.
 -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에서 시범기관 여부에 따른 별다른 차이는 없었으나, 교사의 놀이성에서 차이가 나타남. 3세 교사 중 시범유치원 근무교사의 놀이성 전반과 일부 영역(즉흥성, 반응성, 놀이성)에서 일반유치원



교사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높게 나타남. 4세의 경우는 시범어린이집 근무 교사의 즉흥성 점수가 일반어린이집 근무교사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높았음.

- 개정 누리과정을 고려해 유아관찰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함.
 - 개정 누리과정의 59개 내용을 반영해 관찰문항을 구성하여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교사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함.
 -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관찰한 상황들을 근거로 평정할 수 있게 제시하였으며, 3-5세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함.
 - 개정 누리과정 시범운영 기관에 참여한 교사를 통해 3-5세 유아를 평정하게 한 결과, 5개 영역 모두 신뢰도가 0.89-0.94범위로 나타났으며, 전체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27%와 하위 27%로 나누어 개별 문항의 평가점수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문항변별도가 높음을 확인함.

정책 제언

- 개정 누리과정의 효과성 모니터링을 위해, 유아의 특성과 변화 측면에서의 지속적 점검이 필요함.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근거로 이 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며, 누리과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성과로도 제시될 수 있음.
- 교사의 놀이역량과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관찰척도가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컨설팅 및 유아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KICCE 유아관찰척도」의 활용을 위해 표준화된 기준 제공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사들이 용이하게 유아의 놀이상황을 기록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유해미, 박은정, 정은희, 엄지원

배경 및 목적

- 보편적 육아지원의 확대 과정에서 빈곤가구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아동빈곤의 사각지대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속한 다차원적 결핍 아동 등이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요구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를 조사하여 상대적 결핍 수준을 파악한 후,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양육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함.

연구방법

- 자녀돌봄의 애로사항과 육아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총 1,606 가구(저소득층가구 절반 할당) 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곤가구 대상으로 총 10회(총 11명)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함.
- 국외 사례로서 1) 미국의 Head Start(Early Head Start), 2) 영국의 Sure Start, 3) 호주의 Best Start 사업과 국내 사례로서 1)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경기 수원시/전북 완주군)과 2) 지방정부의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서울 마포구/충북 청주시)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함.

연구결과

-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 양육환경의 충족도는 법정 빈곤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며, 특히 주거공간 및 실내외 환경과 놀이체험 및 문화 활동은 평균 각각 3.2점(5점 만점)과 3.0점에 그침.
 -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자녀양육 시의 어려움은 양육비용 부담이 평균 4.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는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음(평균 3.9점), 긴급할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음(평균 3.8점) 순으로 조사되며, 근로시간 에 자녀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 자녀, 특히 0~1세아를 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빈곤가구의 육아지원 수요
 -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문은 여가 및 문화생활이 48.1%로 가장 높은 응답 률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이사 19.5%, 학원 및 특별활동 11.0%, 발달검사/전문상담서비스 9.3% 순임.
 -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정부지원 요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평균 4.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제도, 주거공간,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공히 4.5점으로 조사됨.



-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전문상담센터 운영이 공히 평균 4.1점 (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유모차, 장난감, 도서 대여 등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가구 대비 높게 나타남.

정책 제언

-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으로는 1)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영역 확장 1: 주거지원과 문화지원의 포괄, 2)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영역 확장 2: 가족관계 등 양육환경 개선 포괄, 3)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의 대상: 빈곤요소별 대응을 위한 비수급 빈곤가구로의 확장, 3) 영유아 빈곤가구 양육지원 수준: 다자녀가족 + 한부모가족 + 맞벌이 가구 + 읍면지역 거주 가구 우선 또는 추가지원을 제시함.
-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강화의 기반 조성 및 원칙으로는 1) 빈곤가구 양육실태 조사 실시와 양육지원 세부 계획의 수립, 2) 통합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3)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협의체기구 내실화, 4) 민관의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강화, 5)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의 성과 진단 체계 구축을 제시함.
- 보육 및 돌봄서비스 부문에서는 빈곤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순위 배점 상향 조정,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임대주택 단지내 시간연장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관 미이용 아동의 양육실태 점검 및 육아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요구됨.
- 영양 및 건강관리 부문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가정방문서비스 확대,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의 확대가 요구됨.
-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지원대상을 현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에서 2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개보수 비용과 주거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요구됨.
- 놀이 및 문화생활 지원 부문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지원대상 아동 연령을 만 3세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수준도 (인당 8만원) 상향 조정하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용가능한 시설의 확장이 요구됨.
-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원대상의 영유아 비중 확대, 지역 및 아동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사업과의 역할 분화 및 연계, 어린이집과의 서비스 연계 강화가 요구됨.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권미경·황선영·이혜민, Morita Akemi, 박지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목적

-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육아정책 수요자의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 조성하기 위한 ‘온 마을’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는 과정을 제시할 것임.
- 본 연구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마을 조성을 위한 단일 척도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자체 수준에서 육아친화적 요소를 발현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육아친화 마을 조성 사례연구, 부모 대상 심층면담, 주민참여 워크숍 2회 개최, 전문가 정책 세미나, 통계분석(기초통계분석, 요인분석, QGIS), 415명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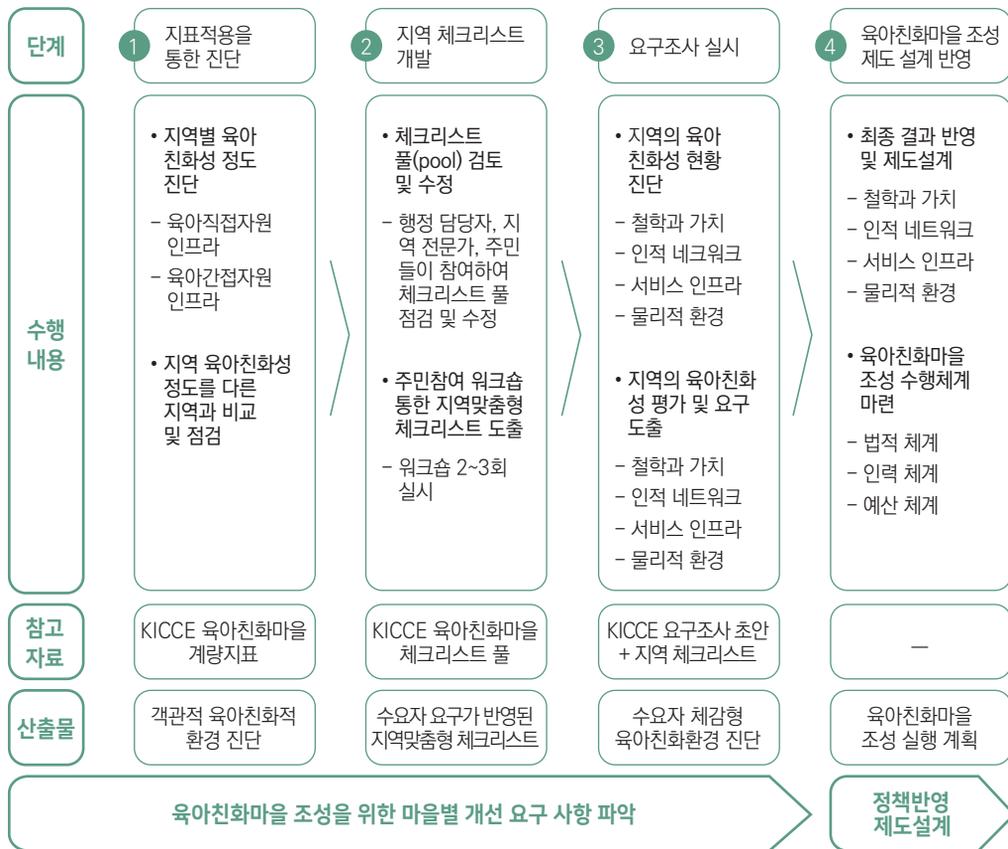
연구결과

-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도출됨.
 - 육아친화적 철학과 가치: 아이·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아이다움을 인정,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 성평등한 육아문화, 육아친화 가치 공유 기회 확대
 - 서비스 인프라 및 물리적인 환경: 소통의 공간, 육아정(育兒亭) 신설, 활용가능한 일가정 양립제도, 육아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 지원적 인적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를 통한 품앗이 육아, 공동육아 네트워크 지원인력, 공동체 육아활동 거점 공간,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와 인프라 관련지표를 포함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지표를 구성함.
- 철학과 가치, 인적네트워크, 보육·교육·돌봄서비스 인프라, 공원 녹지 공간,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네트워크,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행정서비스 인프라 등의 9개 부분에서의 핵심요소와 측정항목을 반영한 100개의 체크리스트 풀(Pool)을 구성함.



정책 제언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1회의 진단과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속성을 지닌 변화의 노력이 요구됨.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지자체가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마을의 인적네트워크가 기능하도록 해야함. 육아친화마을을 조성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이 필수적이며, 육아친화마을을 조성 시 육아친화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해야 함.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II): 컨설팅 실행 및 과정 분석

문무경, 구자연, 이은혜, Maki Hayashikawa, Kyung Ah Kristy Bang, Cliff Meyers, Evelyn Santiago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3개년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3개 협력국(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피지) 공통의 우선적 수요인 ECCE 서비스 질 모니터링의 실태와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각 협력국이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연구협의체의 지속적 운영,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과 콘소시움으로 연구 수행.
- 3개 협력국 현지 면담조사 실시: 서비스 질 모니터링의 실태와 수요 파악
- 협동연구기관과의 온라인 협의회 개최
- 워크숍 및 제2차 육아정책 개발협력 정책세미나 개최(2019.10.10, 국회) 등

연구결과

- 국가별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질 모니터링 실태 분석
 - 우즈베키스탄: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2019년 중반에 서비스 질 모니터링 지표(총 4개 영역, 20개 항목, 총 65개 하위 지표)를 처음으로 마련하였으며, 평가주기, 평가의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베트남: 서비스 질 평가시스템이 구축 및 실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및 단위기관 수준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음(5개 영역, 2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
 - 피지: 단일한 서비스 질 모니터링 지표와 시스템 부재 및 현재 4가지의 평가들을 사용하고 있음(교사 수행, 교육프로 그램 현황 업데이트, 학습환경 관련 월간보고서, 수질과 위생 관련 WASH, 유치원의 관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 보고, 지역교육청의 유치원 방문평가)
- 국가별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질 모니터링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컨설팅 지원
 - 우즈베키스탄: 현장 적용을 위한 제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모니터링 지표의 시범적용 실시, 질 모니터링 지표와 절차에 대한 연수 및 안내 매뉴얼 개발과 보급, 평가자 풀 확보 및 교육훈련
 - 베트남: 모니터링 및 평가도구 보완, 개인과 조직의 모니터링/평가 능력 향상, ECCE 모니터링 평가시스템에 재정 투자 영역 포함



- 피지: ECCE 교사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지표 기준 개발, ECCE 교사와 시설의 질 모니터링 및 진단을 위해 학 교장의 역량 개발, ECCE 교사와 시설의 질 관련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결론 및 제언

- 결론: 3개 협력국은 각기 다른 서비스 질 모니터링 체제 구축과 실행 단계에 있으므로, 협력국별로 다른 개발협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필요
 - 우즈베키스탄: 최근 개발된 평가지표안을 시범적용한 후 전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
 - 베트남: 과도한 수의 평가지표 축소 및 평가 집행체계의 효율화, 평가지표에 대한 유치원 교원 연수
 - 피지: 여러 가지 평가양식을 종합하여 통합된 평가지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3차년도 연구를 위한 제언
 - 3개국 서비스 질 모니터링 실행계획(action plan) 이행을 위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
 - 컨설팅 제공과 더불어 한국 및 연구소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 서비스 질 모니터링 체제 구축에 대한 개발협력 컨설팅 과정과 성과 분석틀 개발 및 적용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연계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V): CARE 컨설팅 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미화, 박원순, 염혜경, 한국보육진흥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 질 관리의 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활용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의무평가제로써 평가 하위등급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병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 및 하위등급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기초하여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평가인증결과 C, 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추진되는 과제임.

연구방법

- 문헌 연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분석 및 평가연계 컨설팅 선행연구 결과 분석, 경영컨설팅 및 의무평가제 관련 자료 검토
- 연구 및 사업 컨소시움 구성: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경기도·인천광역시·충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
- 평가연계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및 사후평가 실시
- 협력기관 간 회의: 연구진·연구협력진·수석컨설턴트 및 컨설턴트·협력기관 직원 등 정기적인 회의 실시

연구결과

- 하위등급 어린이집의 특성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의 경우, 일상생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평가에 있어 달성도가 낮고, 보육환경 및 운영 관리 영역의 경우,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나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음.
 - 건강·안전 영역의 경우, 대체로 영유아들을 위한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확보가 미비함을 알 수 있고, 교직원 영역에서는 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교사 처우와 복지 수준이 낮으며,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임을 알 수 있었음
- 4차년도 시범사업 결과 컨설팅 의제 및 핵심행동 변화
 - 평가인증 영역 중에서는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43%), 4영역 교직원(35%)가 많았음.
 - 평가인증 영역별 의제에 따른 핵심행동 1을 살펴보면 4영역 교직원(40%),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35%)이 높음.



- CARE 의제에 따른 핵심행동 2를 살펴보면 원장은 동기부여 및 피드백(67%), 업무수행 자원 및 환경(18%) 순으로, 교사는 업무수행 자원 및 환경(48%), 보육교직원의 역량(34%) 순으로 높았음.
- 원장의 핵심행동은 교사에게 칭찬과 격려, 패드백이 주류를 이루었고, 교사는 합리적인 업무 분장과 실천, 원장 및 동료 교사와 대화 나누고 공유 및 격려하기 등이 주를 이룸.
- 어린이집 평가연계 컨설팅 효과
 - 65개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결과, 가정어린이집과 하위등급 어린이집 교사의 행동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로 저평가 기관의 사후컨설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기관의 유형, 참여자의 유형과 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사후 컨설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후컨설팅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뿐만 아니라 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상시 질 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정책 제언

- 4차년도 시범사업 특성 및 성과
 - 운영 및 실시상의 어려움: 평가연계 컨설팅 홍보 및 모집의 어려움, 컨설팅 진행과정의 어려움
 - 평가 등급별 격차 심함: 하위등급 어린이집과 상위등급 어린이집 간 특성 파악
 -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제 사후 지원체계 마련에 일조,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기여
- 향후 과제
 - 기관 특성에 따른 사후방문지원 모형 적용
 - 컨설턴트 관리 방안: 공식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 컨설턴트 양성 및 질 유지, 컨설턴트의 질 상향평준화를 위한 사전 교육 체계화와 진행과정 매뉴얼 마련, 수석컨설턴트 업무 매뉴얼 확립, 전담인력 확보로 소통 체계 마련, 우수한 컨설턴트 확보 및 운영
 -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 동기 격려
 - 참여기관의 개별적 특성 고려
 - 적용이 수월한 컨설팅 과정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 문화 인식 조성방안 연구(I):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권미경, 문무경, 김영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SBS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행복한 '육아' 인식과 부-모 공평공동 책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육아 문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여 긍정적 '육아' 인식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 3개년 협동연구임.
- 1차년도에는 현재의 육아문화를 진단 및 분석하고 육아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는 우리사회 육아문화가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여 진단하고자 함.
 - 첫째, 우리사회가 체감하는 육아문화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 둘째, 우리의 일터에서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제도는 있으나 실제 사용은 쉽지 않음.
 - 셋째,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마을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育兒)'에 대해 양성 평등하지 못한 부분, 양육 격차가 존재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부모 대상 심층면담, 2회의 육아문화크리에이터즈 워크샵 개최, 덴마크와 노르웨이 국외 사례수집, 전문가 정책 세미나 개최
- 2016년~2018년 '육아' 키워드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양육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연구결과

- 소셜 미디어 내 빅데이터 분석, 숙의토론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론에서 세웠던 세 가지 가정(체감 육아문화의 부정성, 직장과 사회에서의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부족,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 미흡)이 모두 확인됨을 알 수 있음.
- 육아문화 내의 부정적 요소는 육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직장문화, 신뢰할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의 부족,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 과도한 육아비용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요소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 아이가 주는 기쁨, 가족의 양육 지원, 신뢰할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 안전한 사회,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나타남.
-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주요 접점은 직장에서의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과 분위기의 조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평등에 기초한 가정에서의 육아 환경 구축임.



- 사회 각 주체들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육아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함.
 - 중앙정부 수준: 중장기적 계획에 육아문화 개선 명시, 기업 등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업추진, 육아친화적 지자체 선정 및 홍보, 대중교통에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치
 - 지자체 수준: 지역사회 내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한 시설 설계와 이용 기회를 확대, 지자체 중심으로 육아하는 가정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내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할인 요금 적용, 노 키즈 존(no kids zone) 축소 캠페인 추진, 육아정(育兒亭) 설치, 육아존중문화 크리에이티브 운영
 - 방송매체: 육아존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통해 도모함.
 - 기타: 공중파 이외에 케이블 방송, 유튜브, SNS, 검색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육아존중문화 가치의 확산을 도모함. 육아를 응원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 기관, 영유아 부모, 일반 시민 등에 배포함.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 (한국아동패널 II)

김은설, 최정원, 장혜원, 조혜주, 김희수

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진학한 1,600여명의 아동과 그 가족,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발달과 변화를 조사하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역할과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보다 널리 홍보하고 가용성을 높여 국내·외 학자와 정부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하여금 패널 연구결과의 활용성과 중요성을 더 확고히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아동패널 제10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해외의 아동중심 종단연구 사례와 경향을 함께 공유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아동패널 연구의 결과와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한층 더 진보된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학술 논의의 장에서 아동패널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이 주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연구방법

- 12차년도 일반조사
 -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패널 일반조사/부모조사/교사조사), 아동 수행검사 실시
- 계량적 분석
 - 11차년도 자료의 횡단 분석
 - 1~11차년도 자료 종단 분석
 - 가중치의 추정 및 적용

연구결과

- 일상생활 특성
 - 아동의 식생활 진단의 경우, 우유/유제품 섭취는 낮은 편이지만, 단백질류, 채소, 과일의 섭취 정도는 높아 대체로 권장 섭취 항목을 잘 충족하고 있고, 매일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은 주중 평균 오전 7시 35분에 기상하여 오후 10시 20분에 취침하며, 주말 평균 오전 8시 32분에 기상하여 오후 11시 9분에 취침함.
 - 아동의 평일 하루 활동 시간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5.82시간,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교육 돌봄 시간 2.18시간, 독서 0.76시간, 숙제 및 학습 0.95시간, 통신교육 0.70시간, 영상시청 1.16시간, 게임 0.92시간으로 나타남.



- 약 80%의 아동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는 아동은 94.7%임.
-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수준을 측정한 결과, 아동의 31.7%는 잠재적/고위험 사용자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신체 및 건강 특성
 - 아동의 평균 신체 치수는 신장 141.16cm, 체중 37.63kg, 허리둘레 68.35cm, BMI 18.77kg/m²로 대체로 양호함.
 - 안경 착용하는 아동 29.7%, 시력 교정 도구를 사용하는 아동은 3.4%로, 전체 아동의 약 1/3정도는 시력보정도구를 착용함.
 - 남아의 1.8%는 몽정을 경험하였으며, 여아의 13.2%는 초경을 시작함.
- 자아 및 정서발달 특성
 -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48점, 전반적 행복감은 평균 3.30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 아동은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기대를 갖고 있음.
 - GRIT의 평균 점수는 3.4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아동의 끈기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것으로 파악됨.
- 사회성 발달 특성
 - 아동은 평균 17.92명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의 12.2%는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함.
 - 아동의 또래애착 중 의사소통과 신뢰는 3점대 이상으로 긍정적인 또래애착 수준을 보였으며, 소외는 1점대로 낮은 편임.
- 부모 및 가구 특성
 - 어머니의 취업률은 해마다 조금씩 상향되는 경향을 보임. 자녀가 10세가 된 11차년도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55%이상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패널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임.

정책 제언

-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 방지
- 사이버 비행에 대해 민감성을 키우고 올바른 사이버 공간 사용법을 알게 할 교육,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저소득 가구 아동에 있어 식생활 개선, 언어발달 지원, 리더십 함양, 학업 지원 등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담화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지원을 할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 SDG 4.2 국내 이행 전략 연구

문무경, 박원순, 김영민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교육기회 제공(equality)을 넘어서 교육의 질적 형평성(equity)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측정가능한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권고함.
- 국내에서도 17개 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을 위하여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K-SDG 지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K-SDG 4.2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 이행 현황 진단을 토대로 향후 실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SDG 4.2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SDG 4.2 비전 선포식 및 연합학술대회 개최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총 5개 학회(한국아동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 개최
 - 총 600 여명 참여(2019. 5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 SDG 4.2 국내 이행 현황 분석
 - 글로벌 지표 SDG 4.2.1(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은 개념 정의 및 측정도구 부재
 - 글로벌 지표 SDG 4.2.2(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는 90% 이상 달성. 그러나 국공립시설 이용률 증대 필요
 - 주제별 지표(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측정도구 부재
 -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단일화 및 상향 조정 필요



- 국내 이행 방향 및 실행과제

-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단가의 현실화
-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설 및 사립기관의 공공형 기관 전환 등을 통하여 국공립 기관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증대
-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을 통한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 및 부모 인식 개선과 실천 증진
- 유·초연계 강화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및 유아의 초등교육 준비도 측정도구 개발과 국가수준의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 SDG 4.2 목표와 하위 목표들의 번역 용어 통일과 일관된 사용
- 영유아 발달 및 가정환경 측정도구 개발: 지표 개발 영역은 1) 인간 활동 영역, 2) 가정이나 유아가 처한 환경적 조건, 3) 가정에서 법률과 제도를 활용

제언

- SDG 4.2 목표와 하위 목표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국내 지표 개발 필요
- 국내 영유아의 발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선진국들과 비교를 위한 K-SDG 4.2 지표 재검토 및 4.2.1의 정교화 필요
- SDG 4.2 국내 이행의 과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확대 노력 및 다부문간의 협력 필요

유아 생활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도남희, 박진아, 예한나

배경 및 목적

-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유아의 생활환경과 양육환경에 대한 실태와 요구 파악이 절실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아동(영유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영유아기의 특성과 발달 주기를 고려한 조사 설계를 통해 새로운 조사가 필요함.
-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생활과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향후 유아교육과 부모 교육 등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 유아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수집과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 연구 수행(60명의 유아에 대한 모바일 조사)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실시

연구결과

- 주중과 주말의 행위 비율과 행위 평균 시간으로 행동영역별 분석 결과
 - 개인유지와 교제 및 여가 활동은 주말에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 대리 양육과 학습 시간은 주말에 감소하는 경향임.
- 연령별 생활시간 분석 결과
 - 연령이 많아질수록 학습시간과 기관 이용 등이 포함된 대리양육의 시간이 증가함.
 -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주중 대략 2~3시간 정도이나 주말에는 주중보다 2배 정도 증가함.
- 특성별 생활시간 분석 결과
 -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학습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 이용 등 대리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남아가 더 많았음.
 - 전 영역에 걸쳐 아버지의 참여는 형제자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향후 아동의 생활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가 요구됨.
- 유아의 하루 일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함.
- 가족관계의 경험이 애착형성 뿐만 아니라 이후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의 근간이 되므로 부모의 노력과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가족과 사회에서 유아와 아동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의 확산이 필요함.

어린이집 개정누리과정 적용지원방안 연구

이미화, 이윤진B, 엄혜경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9 개정누리과정의 어린이집 현장 적용가능성의 검토 및 확인을 통해 고시문을 보완하고 놀이 중심 누리과정 운영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개정누리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음.
-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교직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음.
- 본 연구는 개정누리과정이 어린이집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범운영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유아·놀이 중심 개정누리과정 적용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 운영 결과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놀이사례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음.

연구방법

- 시범사업 추진체계 마련: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및 협력
- 컨설팅 시범 운영 실시: 시범운영 어린이집 20개소, 컨설턴트 20인
- 시범어린이집 및 컨설턴트 대상 보고회 실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컨설팅 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회의 실시
- 어린이집별 놀이사례 관찰, 발굴 및 제시
- 연구협력진 구성: 모범 놀이운영 사례 발굴 및 제시

연구결과

- 개정 누리과정 적용 컨설팅 체계 마련
 - 컨설팅 지원 진행 과정: 사전 이해 및 준비, 지원 협의, 실행 및 지원, 종료
 - 컨설팅 초점 영역: 1회~3회차 컨설팅 내용 체계 마련, 전반적으로 개정누리과정 안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컨설턴트의 역할 명료화
 - 컨설턴트는 각 어린이집의 상황과 여건을 숙지하여 유아의 변화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여야 함.
 - 컨설턴트는 교사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경청, 강점을 중심으로 한 발견, 공감, 신뢰, 동반자 관계 맺기, 질문하고 알려 주기, 본보기 되기와 격려하기, 기록하기 등을 통하여 역할을 수행함.
 - 단 강의식 방법 지양, 교사 맞춤형 컨설팅 지원, 원장 및 교사와의 협의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시범 어린이집 놀이 사례 분석
 - 각 시범 어린이집은 주제를 정하고 사전 준비, 놀이 중심 과정으로 변화주기, 적용하기, 평가하기 및 시사점 도출의 과정 흐름을 통해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진행함.
- 모범 운영사례로 연령별 놀이사례 분석
 - 3세반, 3~4세 혼합반, 4세반, 5세반을 주 대상으로 한 놀이사례를 제시함, 놀이 진행 배경, 진행과정, 놀이 진행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해결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유아 놀이 중심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지원함

정책 제언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
 -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개정누리과정은 원장과 교사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함.
 - 향후 개정누리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원장의 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지원해야 함.
 - 개정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평가 및 열린 어린이집 지표의 연동이 필요함
 - 개정누리과정 실행 시기에 따른 교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놀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사 대 유아 비율의 축소가 요구됨.
- 컨설팅 및 컨설턴트에 대한 제언
 - 2020년 3월 개정누리과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한 필요 있음.
 - 시범운영 어린이집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함.
 - 개정누리과정 컨설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간 컨설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컨설팅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집 간 긴밀한 연계 사업 필요함
 - 교사교육공동체를 구성, 운영 지원해야 함
 - 컨설턴트 인력풀 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함.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II)

유해미, 이윤진B, 김영옥, 김진성, 손인숙, 송다영, 안현미, 최영

배경 및 목적

- 모든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역량 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함께 일하고 돌보는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1) 보육서비스의 개편, 2) 현금지원과 자녀돌봄시간 지원간의 정합성 제고, 3) 양육친화적 주거공간 및 지역사회의 조성, 4) 육아와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그 방향성 및 세부과제를 모색함.

연구방법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 정부 주요계획의 핵심 방향 및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검토하여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내용을 파악함.
-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원내 연구자로 '2019 초저출산 사회, 혁신적 포용국가 육아정책포럼 TF'를 구성하고, 각 주제별 총 7회의 포럼을 운영함.

연구결과

-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안현미)
 -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와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과제 등을 직영 어린이집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운영 후 전체 어린이집에 확산하기 위한 중기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편 과제(유해미)
 - 가정내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 지원체계 개편 이후로도 오후 7시 반 이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이 요구되며,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득지원 '라'형 가구의 수요는 신원이 보장된 민간 육아도우미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대응함.
- 아동양육체계 연계 조정 방안: 육아휴직제도와 양육수당제도의 통합(최영)
 - 0~2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수당이 일정부분 부족한 육아휴직급여를 보완하고, 가정양육 시 노동시장 참여 가구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양육수당(부모수당)을 통합하여 제공하며, 노동시장 비참여 가구의 경우 아동양육수당(부모수당)을 제공하여 양 제도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제고함.



•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쟁점과 과제(김영옥)

- 비임금근로자 등 제도 밖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고용보험의 별도 사업으로 설정하고 고용보험 기금 이외에 일반회계나 기타 기금을 투입하여 해당 사업의 수혜자로 포함하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친화 중소기업 인증지표 중 '남성육아휴직 이용'을 필수지표로 이동하고 점수도 상향적용함.

•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쟁점과 과제(송다영)

- 공동육아나눔터가 제대로 된 공동체를 실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비맞벌이-맞벌이, 남성-여성, 어르신-청장년 세대 간 함께 돌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협동조합법」과 「영유아보육법」 법률상 충돌을 해소하여 사회적 협동조합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충을 유도함.

• 양육친화적 신혼부부 주택 계획 방안(김진성)

- 양육친화적 신혼부부 주택을 위해 단지형으로 임대+분양까지 고려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하며, 양육친화적 신혼부부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획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시설의 용도를 복합화 하고 자녀 동반 중심의 시설로 계획하며, 공유경제실현을 위한 공유센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맞춤형 계획을 추진함.

• 산후관리와 돌봄서비스 연계(손인숙)

- 모자동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운영하기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고, 출산 초기 24시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주, 그 이후 2~3주간 8시간 건강관리사 지원이 요구됨.

정책 제언

- 0~1세아의 경우는 기관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양육수당제도와 휴직제도를 통합하여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나, 가정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강화 즉 시간제보육 등의 접근성 제고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단지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접근성 제고에서 나아가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서비스 질적 개선은 물론 취약보육 접근성 제고, 보육교사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산후관리 시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파견도 함께 추진하여 간호사는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사회복지사는 아이가 방임되고 있지 않은지, 가족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함.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인식 및 교육 현황 연구

최효미, 박은정, 이혜민

배경 및 목적

-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는 오랜 시간 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근거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이 때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육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보육교사를 한 명의 노동자로 보는 관점에서 보육현장에서 이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으며, 노동자로서 권리와 입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한 권리 보호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고찰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보육교사 대상 온라인조사(1,024명), 보육교사 협의회 및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 가입 경험 보육교사 심층 면담, 어린이집 원장 대상 심층면담

연구결과

- 보육교사 노동자 권리 보호 실태
 - 다수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입직할 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급여명세서를 매달 수령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 정도였음. 고용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을 했다는 응답은 34.6%였음.
 - 부모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듣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였으며,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따금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8%로 나타남.
 - 법적인 부당 대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항목은 휴게 시간 및 휴게 공간이었으며, 산재보상, 경조사 지원 등과 같은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30%를 상회하였음.
 -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여서 참는다'가 가장 높았음.
- 보육교사의 권리 구제 신청 및 교육
 - 보육교사들은 노무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024명 중 43명으로 거의 없었으나, 노무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해 노사협의회, 보육교사 협의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보육교사 협의회가 5점 만점에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4.1점으로 나타남.



-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에 대한 원장 의견

- 원장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지키기 어려워하는 조항은 휴게시간과 휴일(휴가)의 보장, 근로시간 준수와 관련된 사안이었으며, 모성 보호의 준수와 관련된 부분으로, 육아휴직의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은 어린이집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 계약 기간 또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형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으며, 장기간의 고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었음.
- 보육교사의 감정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원장들은 깊은 공감과 처우 개선의 필요에 강한 동의를 보임.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온라인 등으로 사전교육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았음.

정책 제언

-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핵심사항과 어린이집 특수성을 감안한 근로조건의 명시가 영유아 보육법을 통해 보장될 필요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의 배치와 원활한 대체교사의 지원 등이 필요함.
- 보육교사의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기존의 교사 대 아동비율과 인건비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함.
- 어린이집 현장성을 반영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지침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가동이 필요함. 또한, 가해 학부모(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이 요구됨.
- 보육교사의 노동자 교육, 보육교사 양성과정 전반에 걸친 노동자 인식 교육(원장 및 교사 모두에게 실시), 보육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
- 보육교사의 노무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감정 노동 상담 및 지원,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보육교사 노동자 인권 교육 등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권리보호센터 혹은 노동인권상담센터(가칭)의 설치가 시급함.

아동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도남희, 전지원, 김문정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돌봄 노동과 돌봄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짐.
- 돌봄 수요자에게 안정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가치 평가가 필수임.
- 현대사회에서 돌봄의 가치를 점검해보고자 돌봄의 이론과 연구를 파악하여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며,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 워크숍 개최
- 국제학술회의 개최

연구결과

- 돌봄의 이해와 인식
 -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누가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은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향후 돌봄 노동자의 유입 등과 관련하여 법적·제도적·사회적 준비가 필요함.
- 돌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 돌봄이 지닌 성별화되고 주변화된 특성이 공적 영역으로 그대로 이전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돌봄 노동이 계속 평가 절하된 채 제공되고 있음.
 -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이 투자로 정당화되듯 돌봄 비용 역시 단순한 부담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함.
 - 돌봄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계소득과 정부의 세금, 연금과 사회복지 및 고용 창출에도 영향을 줌.



- 아동 돌봄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요구

- 아동 돌봄은 성인 돌봄과 구분이 필요하며 아이들의 생존, 발달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명에 중요한 필요가 충족 되도록 함.
- 아동 돌봄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가치가 높으며 아이의 성장과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변화함.

정책 제언

- 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확장이 요구됨.
- 돌봄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아동 발달 시기에 따른 돌봄의 질과 양질의 돌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포용사회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돌봄 모델 개발 필요함.

성평등 관점의 영유아 돌봄정책의 진단과 과제

유해미, 박은정, 김영미, 김송이, 김보미

배경 및 목적

- 보육서비스는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 증진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된 정책적 수단이며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성(性)중립적인 제도로써 성평등 관점에서 우선적인 진단이 요구됨.
- 성평등 관점에서 보육서비스는 수요자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접근성과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공급자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을 요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돌봄정책을 보육서비스 이용과 공급 차원을 포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함.

연구방법

- OECD 국가의 보육서비스 이용 및 공급 수준과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 등에 관한 인터넷 자료 조사, 정부의 주요 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 계획 등과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한 문헌연구, 각 년도 보육통계 등 통계자료를 분석함.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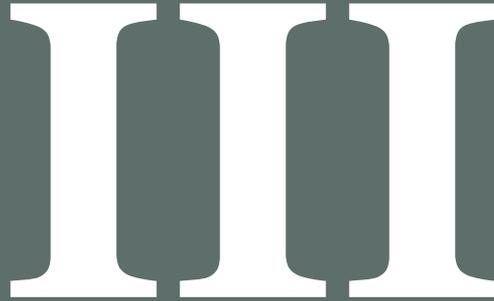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일·가정 양립 지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시는 2012~2018년까지 총 1,27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매년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이용아동수는 55.4% 증가함.
 -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해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가이드 라인 개발 및 적용, 보육과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함.
 - 2017년 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타기관 대비 이용시간 등에서 부모 만족도가 높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높음.
-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시간과 돌봄 사각지대 현황
 - 2017년 기준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중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대기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8년 기준 미취업모(6시간 48분)와 취업모(7시간 42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격차는 1시간 이내에 그치며, 취업모의 희망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8시간 54분으로 현재보다 1시간 이상 길게 나타나며, 돌봄 공백의 주요 시간대는 평일 기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가 41.6%, 오후 7시이후 저녁 시간대가 20.9%로 나타남.



-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이 보육 수요에 못미쳐 개인양육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현상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근로시간의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연장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답보 상태임,
-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근로여건 개선
 - 우리나라 남성 보육교사의 비율은 전체 보육교사 중 1% 미만으로 보육인력의 여성편중 현상이 두드러짐.
 - 보육교사의 급여수준 상승은 최저임금 증가 폭에 못 미치고, 보육교사의 초과 근로시간은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30분 이상 감소하였으나 행정 업무로 인한 초과근로가 지속되며 휴게시간 및 장소의 보장도 미흡한 실정임.
 - 보육교사의 절반 이상이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단축근무제도의 실제 이용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공급 수준은 민간어린이집에서 낮음.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 보육교사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내용이 부재함.

정책 제언

- 종합 진단
 - 그간의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는 비용지원에 집중투자되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나, 다른 한편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보편화는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모의 자녀돌봄을 사회화하여 여성의 '돌보지 않을 권리'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 세부 개선과제
 -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수준의 지역적 격차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진단과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서비스 질 관리 체계의 구축, 종일제보육과 시간연장형보육의 접근성 제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선도적 운영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등을 모색함
 -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종일제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장반교사 공급 체계의 구축과 연장반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점형 시간연장형보육 운영 등을 모색함.
 -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등 기본권 보장의 기관유형별 격차를 완화하고, 연장반교사 등 교사 직위의 다양화에 따른 최소 자격 기준과 재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보육교사의 젠더 감수성 제고를 위해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내용을 개편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상시 대체인력풀 구축,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을 모색함.



2019 ANNUAL REPORT



2019년도 주요활동

주요 행사

주요 간행물

-
육아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주요 학술행사이다. 2019년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태아기부터 초등기를 아우르는 아동 전반 및 부모의 행복과 건강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19. 4. 11(목) 서울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교육실	건강한 태아 및 신 생아기를 위한 육 아정책의 과제	신보라 의원실, 한국모자보건학회	발표: 강영호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정림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강은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안기훈 사무총장(한국모자보건학회) 김증임 회장(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이찬우 팀장(보바스기념병원 사회복지팀) 이우령 위원장(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위원회)
제2차	2019. 6. 7(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건강한 영아와 행 복한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	한국보육지원학회, 남인순 의원실	발표: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진욱 교수(명지대 아동학과) 우현경 센터장(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박용임 교수(안동대 생활복지학과) 이수연 소장(한국위킴연구소)
제3차	2019. 7. 9(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행복한 유아와 안 심하는 부모를 위 한 육아정책의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김해영 의원실	발표: 임수진 교수(동신대 유아교육학과) 김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이종희 교수(동덕여대 아동학과) 오경숙 원장(면일어린이집) 박다정 교사(위례푸른초등학교교정설유치원) 왕혜진 학부모(트위터·페이스북 육아당 운영자)
제4차	2019. 10. 1(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함께 하는 초등 돌 봄을 위한 육아정 책의 과제	한국아동학회, 권은희 의원실, 최도자 의원실	발표: 김근진·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박혜준 교수(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토론: 송다영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봉제 연구교수(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이미림 교사(부용초등학교) 김은중 학부모(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2019년 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2019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2019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기반을 통한 선도적 육아정책 개발과 선제적 이슈 발굴 등을 위해 유관 부처,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언론 등 37개 기관으로 구성된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제1차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육아정책과 아동정책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고, 제2차 포럼에서는 2019년 생태계 포럼의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9. 5. 15(수) 서울 세종호텔 3층 로즈홀	문재인정부 2주년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 유해미 단장(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 류정화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소) 토론: 이희선 부회장(한국아동학회) 안현미 실장(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정익중 회장(한국아동복지학회) 고완석 팀장(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 양선아 기자(한겨레신문) 참석: 유구중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권혜진 이사(한국보육지원학회) 강경희 대표이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성순 회장(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유희정 원장(한국보육진흥원) 김정미 본부장(굿네이버스)
제2차	2019. 12. 13(금) 밀레니엄 서울 힐튼 3층 코랄홀	2019년 생태계 포럼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논의	참석: 박혜원 회장(한국아동학회) 유구중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안재진 위원장(한국아동복지학회 연구위원회) 한정열 회장(한국모자보건학회) 정희영 사무국장(한국사회복지학회) 김미호 부장(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이규석 원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KAL 열린토론회 및 KAL 현장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는 'KAL(KICCE Active Listening) 적극적 경청'의 일환으로 총 4회의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부모, 현장전문가, 정부부처, 시민사회, 언론, 원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연구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KAL 현장간담회는 소장 및 원내 연구진이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가구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총 6회를 걸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육아지원기관, 초등 방과후 돌봄종사자, 장애영유아 부모, 청년, 위탁부모와 함께 정책수요자 집단별에 맞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개별 요구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KAL 열린토론회

구분	일시/장소	대상	주요 참석자
제1차	2019. 2. 21(목) 연구소 세미나실	학계, 부모, 현장, 언론, 시민사회 등	토론: 정미라 회장(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한국사회복지학회) 장학관(인천시교육청)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학부모
제2차	2019. 3. 5(화) 연구소 세미나실	원내 임직원	백선희 소장 및 원내 임직원
제3차	2019. 4. 3(수) 하얏트리젠시 제주		
제4차	2019. 10. 2(수) 연구소 세미나실		



2019 제1차 KAL 열린토론회



2019 제3차 KAL 열린토론회



2019 제4차 KAL 열린토론회

KAL 현장간담회

구분	일시/장소	대상	주요 참석자
제1차	2019. 3. 27(수) 굿네이버스회관 멀티미디어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기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제2차	2019. 4. 30(화)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	지역사회 육아지원기관	위스데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혁신기업 더함 관계자, 부모 조합원
제3차	2019. 5. 22(수) 서울시민청 동그라미방	초등 방과후 돌봄 종사자	서울시청 혁신교육지구 협력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제4차	2019. 7. 23(화) 서울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영유아 부모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부모 대표 및 부모 4인
제5차	2019. 8. 19(월) 연구소 대회의실	청년	참석: 1990년대 후반 출생 청년 8인
제6차	2019. 9. 19(목) 중앙가정위탁센터 회의실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가정위탁 위탁모 3인



2019 제1차 KAL 현장간담회



2019 제2차 KAL 현장간담회



2019 제3차 KAL 현장간담회



2019 제4차 KAL 현장간담회



2019 제5차 KAL 현장간담회



2019 제6차 KAL 현장간담회

국제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2019년 총 7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KICCE 동아시아 육아정책 국제세미나(KICCE East-Asia Seminar)」를 비롯하여, 박경미 의원실, UNESCO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과 함께 「제2차 육아정책 개발협력 세미나(KICCE Seminar on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등을 개최하였다. OECD, 베트남국립교육과학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 교류 및 육아정책 개발협력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KICCE East Asia Policy Seminar(KICCE 동아시아 육아정책 국제세미나)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3차	2019. 6. 17(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Status and Tasks of Child Care Policy in Japan	정춘숙 의원실	발표: 소마 나오코 교수(横浜国立大学院 国際社会科学府) 이연화 교수(東京経済大学 経済学部) 토론: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영인 교수(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4차	2019. 8. 27(화) 연구소 대회의실	Trends and Issues of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 Korea and Japan	한국유아교육학회	발표: Niwa Takashi 교수(名古屋市立大学) 한재희 교수(통역, 四天王寺大学) 김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이정옥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제5차	2019. 10. 31(목) 로얄호텔 제이드룸	Kindergarten Evaluation in China and Korea: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Strategies	한국열린유아 교육학회	발표: 박원순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경철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정정희 교수(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진성숙 원장(서울은곡유치원, 전 서울시유아교육진흥 원장)



제3차 KICCE East Asia Policy Seminar



제4차 KICCE East Asia Policy Seminar



제5차 KICCE East Asia Policy Seminar

KICCE Seminar on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육아정책 개발협력 세미나)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2차	2019. 10. 10(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박경미 의원실, UNESCO 아태지역 본부, ARNEC	발표: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Nguyen Thi My Trinh 박사(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Vietnam) Joti Mala 교육과정심의위원(Ministry of Education, Fiji) Maki Hayashikawa(UNESCO Bangkok) Cliff Meyers(ARNEC) 토론: 강혜영 연구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이희경 교수(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안해정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양해경 차장(KOICA 성과관리팀)

KICCE Policy Seminar(KICCE 국제세미나)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19. 7. 11(목) 연구소 대회의실	지역사회 육아친화 마을 모델 개발방안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혁신기업 더함, 일본 아동권리협약 종합연구	발표: Morita Akemi 교수(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박지윤 연구원(일본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박성민 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권미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윤태범 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양동수 대표(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주림 소장(유일아이도시연구소)



제2차 KICCE Seminar on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제1차 KICCE Policy Seminar

국제세미나

기타 세미나 및 학술대회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기타	2019. 9. 7(토)-8(일)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부	제15회 사회보장국제학술 대회: 육아정책 세션	한국사회정책학회 동아시아연구특별 위원회, 보건복지 부, 교육부, 국민건 강보험공단 등	발표: 이연화 교수(東京經濟大學) 도남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차저하오 교수(中國勞動關係學院 公共管理系) 토론: 장영인 교수(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9. 10. 8(화) 서울 명동포스트타워 스카이홀	2019 Korea- Vietnam 국제세 미나: Training of Trainers of Early Childhood Teach- ers in Vietnam: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VNIES, 한국영유아교원 교육학회	발표: Nguyen Thi My Trinh 박사(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Vietnam) Nguyen Thi Lan Phuong 박사(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Sciences)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엄지숙 교수(건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희경 교수(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류한별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0. 25(금) 서울 명동포스트타워 스카이홀	한-OECD 유아교 육·보육 교원 정책 세미나: Launching Event for Provid- 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 tion and Care: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한국영유아교원 교육학회	발표: Yuri Belfali(Head of Division, Early Childhood and Schools, OECD) 김은실 연구위원(TALIS 3S 한국 연구책임, OECD ECEC Network 국가조정관/육아정책연구소) 토론: 박은혜 교수(OMEF 세계유아교육기구 세계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승하 교수(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총무이사/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윤경 연구위원(TALIS 3S 한국 전 연구책임/ 육아정책연구소)



제15회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



2019 Korea-Vietnam 국제세미나



한-OECD 유아교육·보육 교원 정책 국제세미나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추치기관	주요 참석자
기타	2019. 10. 29(화)~30(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 인제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Values of Care Work and Social Inclusion: 돌봄의 가치와 포용사회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동국대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기조연설: 돌봄의 사회적 가치의 재인식과 새로운 사회로의 제언(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발표: 전지원 선임연구원(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도남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허요영속 센터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Multicultural Society and Care in Gimhae: 김해의 다문화사회와 돌봄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인제대 LINK+사업단, 인제대 디자인연구소	발표: Ito Peng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Elizabeth KING (Nonresident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Former Acting President of Human Development Network, World Bank) Maria FLORO (Professor, American University)



2019년 돌봄국제학술회의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1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제강연은 Thomas Moser 교수(University of South-Eastern Norway)와 Corinna Kleinert 교수(Leibniz Institute for Educational Trajectories (LifBi) in Germany)가 기초강연자로 나서 각각 'What can we learn from Norwegian studies on long-term effects of ECEC?'와 'The German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NEPS)'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학술대회 논문발표는 부-모양육, 학교적응, 아동의 well-being의 3주제로 나뉘어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신나리 충북대학교 교수,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권혜진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가 주제별 좌장으로 발표 및 토론을 이끌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2019. 11. 1(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주제강연1: What can we learn from Norwegian studies on long-term effects of ECEC?(Thomas Moser 교수, University of South-Eastern Norway) 주제강연2: The German National educational Panel study (NEPS)(Corinna Kleinert 교수, Leibniz Institute for Educational Trajectories (LifBi) in Germany) 분과별 주제발표: 부-모양육, 학교적응, 아동의 well-being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2019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육아정책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여 새로운 육아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포럼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총 3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TF는 다양한 분야(보건복지, 주택 및 주거, 사회복지, 노동시장, 여성 정책 분야)의 내·외부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포럼을 진행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9. 9. 5(목) 연구소 대회의실	2개 분야 (현금지원과 자녀돌봄 시간지원의 정합성 제고/보육서비스의 개편 방향 및 과제)	발표: 최 영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해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안현미 박사(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토론: 최윤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2차	2019. 9. 26(목) 연구소 대회의실	2개 분야 (현금지원과 자녀돌봄 시간지원의 정합성 제고/양육친화적 주거공간 및 지역사회 의 조성)	발표: 송다영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옥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안현미 박사(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3차	2019. 10. 8(화) 연구소 대회의실	2개 분야 (양육친화적 주거공간 및 지역사회의 조성/건강권 보장 강화: 산전 후 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발표: 김진성 책임연구원(SH도시연구원) 손인숙 교수(건국대병원) 토론: 김상호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정림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제1차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 육아정책포럼



2019년 제2차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 육아정책포럼



2019년 제3차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 육아정책포럼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성과의 확산 및 정책화 노력을 위하여 국회, 정부부처, 시민사회 및 학계와 공동으로 육아정책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동 주최 등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국회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주최하는 연구성과 보고회 참여를 통하여 대국민을 대상 성과확산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SDG 4.2 워킹그룹 등과 협력을 통한 연합학술대회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등 학계와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여 연구 성과 공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19. 1. 18(금) 연구소 대회의실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교육부	발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중심으로(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토론: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학교) 위성순 대표(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이인옥 원장(한양제일유치원) 김성섭 정책위원장(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영연 팀장(한살림 서울교육팀) 박영란 공동대표(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임정은 활동가(정치하는 엄마들)
2019. 2. 13(수) 전주 그랜드 힐스톤 호텔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육아정책연구소 세션: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	주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2개 학회, 연구기관 등 80개 유관기관	기조연설: 초저출산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발표1: 건강한 출생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한정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발표2: 미래사회의 주역, 영유아 돌봄·교육 통합 지원정책(최일선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발표3: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과 사회환경 조성 방안: 사각지대 해소 중심으로(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토론: 강민정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나미 명예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 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화 교수(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9. 5. 8(수) 더케이호텔 서울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세션」 6. 복지노동여성 세션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개 소관 연구기관	발표: 영유아 육아 및 보건 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19. 5. 10(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UN SDG 4.2 비전선 포식 및 연합학술대 회: 모든 영유아를 위 한 양질의 교육·보육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유네스 코한국위원회, 아태이해 교육원, 한국아동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 보육지원학회, 한국사회 복지학회	[비전선포식] 참석: 문태훈 위원장(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김광호 사무총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임현묵 원장(유네스코 아태이해교육원) 양진욱 회장(굿네이버스) 조성연 회장(한국아동학회) 유구종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정익중 회장(한국아동복지학회) 이완정 회장(한국보육지원학회) 기조강연1: 지속가능발전의 모습과 실현(문태훈 지속가능발 전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2: UN SDG 4.2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국내 이 행 이슈와 방향(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학술대회] 발표: 전효정·고은경(동아대학교) 정대현(충신대학교)김진욱(명지대학교) 송다영·백경훈(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숙·박호준(한국교통대학교/서울대학교) 조대훈(성신여자대학교) 토론: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선경(청주교육대학교) 안현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장희선(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박성호(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서현숙(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 종합토론: 조성연(한국아동학회장) 유구종(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정익중(한국아동복지학회장) 이완정(한국보육지원학회장) 정무성(한국사회복지학회장)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19. 9. 20(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를 위한 집중 토론회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 육아정책 연구소	발표1: 공공성과 교육자치를 실천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과제(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 위원) 발표2: 왜 협동조합형 유치원인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단장) 토론: 이지영 이사장(서울꿈동산아이유치원) 장성훈 이사장(아이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김소향 활동가(정치하는 엄마들) 김영연 팀장(한살림 서울) 이은애 센터장(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필순 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2019. 10. 11(금)~12(토)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한국사회정책연합학 술대회 육아정책연구 소 세션: '육아정책 분 야 재정 투자의 현안 과 과제	주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 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육아 정책연구소 등	발표: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 효과 분석(우석진 명지대학 교 경제학과 교수) 누리과정 재정 지원 과정(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 연구위원) 토론: 김동훈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박진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19. 10. 28(월) 양재 엘타워 오페라홀	육아정책연구소-산 업안전보건연구원 공 동 심포지엄: 보육교 사 근로환경실태와 개 선 과제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산업안 전보건연구원	발표1: 임진석 과장(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표2: 김근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김호연 센터장(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지부) 김동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대옥 교수(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2019. 12. 10(화) 국회도서관 지하강당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 을 위한 토론회: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 진단 및 정책 개선	주최: 장정숙 의원실, 박용진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기동민 의원실, 신상진 의원실, 전해숙 의원실, 최도자 의원실, 육아정 책연구소	발표1: 장애영유아 정책의 현주소 진단: 장애영유아 양육 실태 및 정책과제(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 위원) 발표2: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의 중요성(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토론: 이해연 대표(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권영화 원장(경산밝은어린이집) 박재홍 사무관(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김윤태 교수(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문경자(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교육부 관계자



UN SDG4.2 비전선포식 및 연합학습대회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브라운백 정책 미팅

육아정책연구소는 정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연구직원의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토론의 장(場)인 '브라운백 정책 미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연구직뿐만 아니라 행정직군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연구지원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9. 3. 14(목) 연구소 세미나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의 이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백선희 소장, 유해미 연구위원(이상 육아정책연구소) 참석: 원내 연구진 전원
제2차	2019. 5. 7(화) 연구소 세미나실	시민참여형 정책진단 숙의토의모델(안) 소개	발표: 김춘석 상무(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참석: 원내 연구진 전원
제3차	2019. 9. 4(수) 연구소 세미나실	2019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사업 방향 및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정부계획의 방향성 공유	발표: 백선희 소장, 유해미 연구위원(이상 육아정책연구소) 참석: 원내 행정직 전원
제4차	2019. 9. 12(화) 연구소 세미나실	포용국가 사회정책 공유 및 육아정책의 변화와 쟁점	발표: 백선희 소장, 유해미 연구위원(이상 육아정책연구소) 참석: 원내 연구진 전원



2019년도 제1차 KICCE 브라운백 정책 미팅



2019년도 제2차 KICCE 브라운백 정책 미팅



2019년도 제4차 KICCE 브라운백 정책 미팅

업무협약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활발히 체결하여 연구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 단일 연도 중 국내 기관과 5건, 국외 기관과 3건 등 총 8건의 성과를 올렸으며, 연구 협력, 세미나 공동개최, 상호지원 관련 협의 등 실제적인 협력과 내실있는 교류를 진행하였다. 국외의 경우, 동아시아 육아정책 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국립교육과학원, 일본아동권리협약연구소, 상해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와의 신규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하나금융그룹, 사회혁신기업 더함과 같은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교육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수행 및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내

일시	협력기관	협약내용
2019. 3. 7(목)	하나금융그룹	[새로운 육아인프라 모델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과제에 대한 상호 협력 - 하나금융그룹 보육지원 사회공헌사업 등에 대한 지원
2019. 3. 29(금)	세종시교육청	[2019년 국가시책사업(유아교육역량강화)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사업 업무협약] - 교육과정 개정 자료 개발 -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 - 학부모 교육 - 교육과정 개정 제도 개선 지원
2019. 5. 16(목)	사회혁신기업 더함	[육아친화형 마을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형 마을 조성 모델 개발과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육아 소모임, 포럼 등 행사 참여, 육아·돌봄 전문가 자문제공 등 협력 기관의 활동 지원 - (사회혁신기업 더함) 공동육아 소모임, 포럼 등 행사 진행 및 육아친화형 조성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2019. 6. 18(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아친화형 마을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 육아친화형 마을 조성 모델 공동 개발 및 유관기관 확산·홍보 - 육아친화형 마을 조성 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 공동 학술행사 진행 - 기타 육아친화형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협력
2019. 11. 26(화)	한국언론진흥재단	-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상호협력 - 어린이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연구 협력 - 육아정책연구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추진 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력

국외

일시	협력기관	협약내용
2019. 6. 26(수)	베트남 VNIES	- 2019년도 유아교사교육자 교육(TOT: Training of Trainers)에 대한 수요조사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협동 추진 -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2019. 7. 11(목)	일본아동권리협약 종합연구소	- 아동 권리 정책 연구 - 가족 지원 정책 연구 - 육아친화도시·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협력
2019. 12. 16(월)	상해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 유아교육·보육 정책, 가족 지원 정책, 취약계층 유아들을 위한 정책에 관한 공동 과제 및 세미나 진행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정책적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포럼은 육아 관련 현안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집중조명'과 국내·외 육아정책동향을 담은 '정책동향' 등으로 구성된 계간지이다.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필자
59호	2019. 3. 31	권두언	건강한 임신과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발, 늦지 않았다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임산부등록제 추진과 향후 과제	이정림 연구위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육아지원을 위한 방안	강은진 연구위원
		정책동향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동아시아(한·중·일)의 저출산 정책 변화와 쟁점	도남희 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팀		
60호	2018. 6. 30	권두언	함께 돌봄이 존중되기 위한 시작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 방안	유해미 연구위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과제	권미경 연구위원
		정책동향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대책 마련	성과공유팀
			독일 보육 정책, 변화와 시사점	이운진 부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팀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필자
61호	2019. 9. 30	권두언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기업, 지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때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일·가정양립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 방안	이재희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임현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팀
62호	2018. 12. 31	권두언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0년 보육과 유아교육의 변화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과 개정 내용	김은영 연구위원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강은진 연구위원
		정책동향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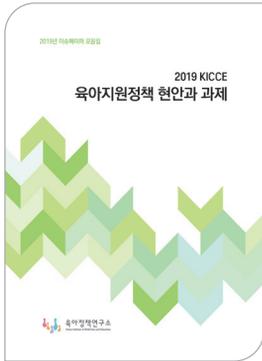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 Brief」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안하는 정책현안지이다. 2019년에는 누리과정,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련 현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74호	2019. 2. 21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재원부담 논란: 그 배경과 쟁점	김근진 부연구위원
75호	2019. 8. 9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 삶의 질 진단이 관건	도남희 연구위원
76호	2019. 9. 9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신혼부부에서 육아가구로 확장해야...	최효미 부연구위원
77호	2019. 11. 15	도농복합시에서 시작하는, 육아친화농어촌 만들기	김은설 연구위원
78호	2019. 12. 16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79호	2019. 12. 31	보육교사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정책과제	박진아 부연구위원

Issue Paper



「Issue Paper」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부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	2019. 6. 25	2018 CARE컨설팅 시범사업 결과 및 제도화 방안	권미경 연구위원
2	2019. 7. 2	재가 미혼모 가정 실태 파악을 통한 양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김지현 부연구위원
3	2019. 7. 22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및 과제	이정림 연구위원
4	2019. 7. 24	다문화 유아를 위한 유치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권미경 연구위원
5	2019. 8.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인식 및 정책시사점	김은영 연구위원
6	2019. 8. 1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7	2019. 9. 27	임산부 등록제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이정림 연구위원
8	2019. 12. 16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박창현 부연구위원
9	2019. 12. 17	영유아 인구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 분석	양미선 연구위원
10	2019. 12. 31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창현 부연구위원

KICCE Policy Brief



KICCE Policy Brief는 한국의 육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쉽게 서술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영문 간행물이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3호	2019. 9. 26	An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the Low Fertility Policies in Korea	최은영 연구위원
14호	2019. 12. 19	Understanding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김은영 연구위원
15호	2019. 12. 30	Childcare Center Survey 2018	강은진 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세계 주요 국가의 육아정책 동향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집필한 간행물로, 육아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24호	2019. 12. 31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장경희 교수(신성대 사회복지학과) 유해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25호	2019. 12. 31	영국의 육아지원정책(II)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2007년부터 학계, 정책 및 현장전문가, 관련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취학전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다루는 학술지로,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횟수를 늘려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1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3권 1호	2019. 6. 30	영유아교사 인성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김성원 (총신대 산업교육학부 조교수) 신정애 (강남대 유아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신문 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 담론분석	이지영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교실 참여에 따른 사교육 시간과 비용 및 일-양육 양립에 대한 인식 차이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솔비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수료) 장지현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양현경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유아기의 가정환경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차이	배한진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허청아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어머니의 취업, 가정환경,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중심으로	이예진 (가톨릭대 시간강사) 김춘경 (한국방송통신대 시간강사)
		유아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차지연모형을 활용한 매개효과	제희선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plus 연구원) 채혜경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호수	발행일	주제	필자
13권 2호	2019. 9. 30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변화 특성 분석	강성익 (㈜유알아이도시연구소 연구원) 김아름 (㈜유알아이도시연구소 소장) 이주림 (㈜유알아이도시연구소 소장)
		어머니의 출산 후 6년간 우울증상 궤적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김연하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구조적 관계 :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성정혜 (경북대 아동학부 외래교수) 김춘경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김수정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APIM)를 중심으로	한혜림 (영남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지민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교수)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과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	염혜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김재신 (경기연구원 연구원) 임은의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최지은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김현경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13권 3호	2019. 12. 31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실태 및 부모 인식 분석	오주현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박용완 (경상대 경영학과 조교수)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시간 분석에 기초한 근무여건 개선방안	조미라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연구교수) 심익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 과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군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	김연하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장 욱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서홍우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JCCPE)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문 학술지로 세계적인 학술전문출판사인 Springer사의 Open Access 플랫폼인 ‘SpringerOpen’을 통해 전자저널로 발간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립 Rutgers 대학의 국립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8년 SCOPUS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9년에는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저자
13(1)	2019. 5. 23	Aspects of socio-emotional learning in Taiwan's pre-schools: an exploratory study of teachers' perspectives	J. Eric Wilkinson (Emeritus Professor of Education, University of Glasgow) Chia-Pin Kao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outher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3(2)	2019. 6. 17	"You have a status": a case study of parent leadership in a U.S. school readiness initiative	Anne L. Douglass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redith R. Maroney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ary Coonan (Center for Social Polic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Donna Haig Friedman (Center for Social Polic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Alice Carter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13(3)	2019. 7. 10	How Banking Time intervention works in Turkish preschool classrooms for enhancing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Derya Sahin Asi (Preschool Teaching Program, Faculty of Education, Ege University)
13(4)	2019. 7. 30	The relation between reflection and the quality of a preschool teacher's education performance	Zora Syslová (Department Primary Education, Faculty of Education of Masaryk University)

호수	발행일	주제	저자
13(5)	2019. 8. 26	Effect of cropland and livestock ownership on child labour in eastern Ethiopia: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Wealth Paradox	Arega Shumetie (Department of Economics, Debre Markos University, Debre Markos) Kassahun Mamo (Department of Economics, Candidates at Illinois State University)
13(6)	2019. 9. 23	"Who's got the power?":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anti-bias curriculum	Arega Shumetie (Department of Economics, Debre Markos University, Debre Markos) Kassahun Mamo (Department of Economics, Candidates at Illinois State University)
13(7)	2019. 10. 25	Understa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utilization in Canada: implications for demand and oversight	Petr Varmuza (Applie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University of Toronto) Michal Perlman (Applie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University of Toronto) Linda A. White (Political Science and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nd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13(8)	2019. 11. 7	Teachers' beliefs about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in Saudi Arabia	Ahlam A. Alghamdi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Taif University) James M. Ernest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13(9)	2019. 12. 5	Sustaining collaborative preschool partnerships and the challenges of educating the whole child	Ryan Alverson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Laken Ginn (Department of Social Work,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Jaesook Gilbert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13(10)	2019. 12. 5	Policy levers to promote cultur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in the USA: recommendations from system specialists	Mary L. Porterfield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epartmen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atherine Scott-Littl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epartmen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IV

2019 ANNUAL REPORT

2020년도 추진계획

2020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중점연구사업

2020년도 사업개요

2020년도 연구사업 총괄

-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경영 목표

육아정책 연구
영역 확대 및 정책
개발 선도

육아정책 연구의
글로벌 플랫폼
실현

소통·공유·협력의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

열린 혁신 경영을
통한 행복한 일터
실현과 사회공헌

연구 사업 관련 주요 국정 과제



연구 사업 운영 방향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 부모의 다양한 육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관련 연구
- 영유아 행복과 발달 증진을 위한 기초 및 정책 연구
- 보육·교육의 인적·물적 환경에 대한 연구
- 영유아 가구의 소비 및 육아물가 연구
- 육아정책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
- 미래 육아정책을 선도하는 생태계 구축 관련 연구
- 국제기구 및 동아시아·유럽 관련 국제비교 연구
-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사업 추진

중점연구사업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 연구기관 고유 목적 및 미션과의 부합성
- 국가정책의제 및 주요 현안과의 연계성: 시의적절성, 정책 중요도, 정책 활용성
- 기관장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영유아 교육·보육분야 사회갈등 진단과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진단하여 향후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유형(구조, 관계) 분석 및 원인 진단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이해당사자(정부-현장-부모)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요구 파악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의 영향요인, 사회갈등이 미치는 영향 등 파악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비용 추정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해소 및 대응 방안 모색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에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수용, 현장적용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사의 자율성 확대라는 방향성을 가진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과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유아들이 놀 권리, 쉼 권리와 동시에 발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주요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의 의미 및 관련 선행연구 정리 - 개정 누리과정 적용의 실제 -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 원장, 학부모 등 관계자 인식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연구(Ⅱ) : 직장에서의 육아존중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도모함. 2차년도는 직장, 사회전반에서 부모의 육아권과 아동권을 존중하는 육아문화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전략을 제시함.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안에서 불평등적 요소를 식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주요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육아지원 제도 조사 - 직장 내 육아문화 인식 진단 - 국내·외 기업 중 긍정적 육아문화가 구축된 사례를 수합하여 시사점 도출 - 직장 내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정적 요인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이를 제거해나가는 방법 제시 - 직장 내에서 아동과 육아존중 육아문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 실행 -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업체와 협력으로 시범적용 및 효과 분석

2020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아동의 삶의 질이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때 결과적으로 포용적 사회로의 지향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육아격차를 완화하여 육아형평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근로시간의 법률적 사안이 현안으로 떠오르며, 향후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함께 보육시간의 설정,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정교사 간의 근로시간 부담, 업무 부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 법제도 적용으로 실질적 권리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어린이집 인력 배치의 합리적 근거를 도출하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3	맞벌이가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방안 연구
	맞벌이 가구의 근무환경에 주목하여 자녀돌봄 부담 현황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자녀돌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4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생애 초기를 건강하게 출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산후 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 및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출산,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5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의 저출산 쟁점과 임신, 출산, 육아정책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각 국의 정책 도입 과 실행과정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임신·출산·육아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함.
6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다양한 자료들 수집하고 정리하여 동향과 방향을 파악하도록 하며, 탈북민, 대북지원 시민단체 현장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2차 자료를 검증하도록 함. 추후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통일대비 남북한 협력 시스템 구축, 북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번호	과제명
	개요
7	성인지 관점에서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초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사회 전반에서 돌봄에의 수요와 욕구, 참여도가 높아지는 돌봄영역의 확대를 고려함. 돌봄서비스의 이용과 참여에서 양적 성장 외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전략을 성인지·성평등의 관점에서 돌봄정책에 제언하고 구체화 함.
8	영유아 교육·보육분야 사회갈등 진단과 대응방안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진단하여 향후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9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방안 연구
	초중등교육과 달리, 기간 낙오된 수준에 있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세계시민교육(GCED)과 연계하여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 학계, 서비스 전달체계 등 다각도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2030까지의 단·중·장기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10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주52시간 본격적인 시행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를 분석하여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의 분담체계 개편을 제안함.

2020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육아정책 현안 발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육아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함.
2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아시아지역 육아정책연구의 선도기관(The ECEC Hub of the Asia region)」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한 정책연구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 및 유관해외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육아정책관련 국제비교 협동연구 및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함.
3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외 육아정책 최신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과 전자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국내 육아정책 자료의 데이터 뱅크 역할을 수행함.

기관고유사업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연구기획사업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육아정책 전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목표 추진·관리, 기본·수탁 연구과제 운영·관리·지원,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의 윤리성·공정성 확보 추진, 기관 자체평가 연구, 산·학·연과 연구협력 등을 추진함.
2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연구사업 결과를 다양한 자료로 산출하여 정부부처, 육아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함.
3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과제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외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학술정보 자료의 지속적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위상 제고를 도모함.
4	연구지원전산 운영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물품 등 구매 지원 및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함.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의식 조사를 1~3차년도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정책적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각 정책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에 따른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
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5년 연속과제 중 3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서, 1~2차년도(2018~2019년)에 개발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함. 또한, 2019~2020년도 육아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층분석하여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함.
3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III)
	5개년 연속과제로 총 3개의 세부연구 과제로 구성되며,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2018년도에 구축된 영유아 가구 중 취약연령으로 전환되는 가구를 지속 추적조사하여 육아부담 및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마다 신생아 표본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연구과제1 'KICCE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I)'는 영유아 자녀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행태 및 양육비,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 및 이용비용, 정책 활용도 및 만족도 등 육아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등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 3차년도 연구(2020년)에는 기존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를 연구과제 1에서 포괄하여 진행함. 연구과제2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영유아자녀 양육에 필요한 육아 고유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의 현황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육아물가지수를 산출함.
4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III): 「KICCE 유아관찰척도」 전산구축 및 현장 적용
	기개발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KICCE 유아관찰척도」 전산화 구축사업을 통하여 이를 현장에 확대·보급함으로써 교사들에게 유아 관찰을 통한 자기 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써 개별 유아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증진 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누리과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함.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에 맞게 개편된 「KICCE 유아관찰척도」의 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 구축과 현장적용을 통해 활용 매뉴얼을 제안함.
5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빈곤가구 특성별 양육실태 분석
	가족 배경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양육환경의 격차와 빈곤가정의 양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제2차 연구에서는 가구특성별 차별화된 양육 시 애로사항과 요구를 파악하여, 가구 여건별 세부 정책을 제안함.
6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 지역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1차년도에서 개발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실제 현장에서 대도시, 읍면지역, 신규 조성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시범 적용·진단함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육아친화마을 지표 및 조성 체계를 수정, 보완함.

2020년도 사업개요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7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과 개정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고 개정 누리과정이 미래 인적 자원 양성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봄.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교원과 관계자들의 인식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 안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8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Ⅲ): 컨설팅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본 연구는 2차년도에 수행된 아태지역 국가의 육아정책 우선정책과제인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질 모니터링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협력 컨설팅 실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 SDG 4.2 이행을 위한 선정국 지원 및 아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9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V):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시범사업
	본 연구는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 및 저 성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5개년 연구 중 5차 년도 연구임. 특히 본 5차 년도 연구는 평가제 도입 후 평가결과 C, D등급 받은 어린이집에 4차 년도까지 개발된 평가연계 컨설팅 모형을 시범 적용함.
1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인식 조성 방안 연구(Ⅱ): 직장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도모하고자 함. 2차년도는 직장, 사회전반에서 부모의 육아권과 아동권을 존중하는 육아문화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전략을 제시함.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안에서 불평등적 요소를 식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함.
11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9 (한국아동패널 Ⅱ)
	빅데이터의 축적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후 영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고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 및 학교에서의 형식·비형식 교육 경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본 12차년도 연구는 가구특성을 축소하고 아동 특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여 한국 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1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 운영 유지보수 웹방화벽 및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을 통하여 정보보안 강화
13	전산실 운영 사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온도 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유지
14	홈페이지 및 정보인프라 개선사업
	최신 트렌드의 연구성과 방법을 적용해서 리뉴얼한 홈페이지에 탑재 홈페이지에 접속한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정책수요자와 연구소 간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2020년도 연구사업 총괄표

기본

번호	연구과제명
1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2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3	맞벌이가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지원방안 연구
4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5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6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7	성인지 관점에서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8	영유아 교육·보육분야 사회갈등 진단과 대응방안
9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방안 연구
10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일반

번호	연구과제명
1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3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Ⅲ)
5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KICCE 유아관찰척도」 전산구축 및 현장 적용
6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Ⅱ):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7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 지역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8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9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Ⅲ): 컨설팅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10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V):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시범사업
1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인식 조성 방안 연구(Ⅱ): 직장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1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Ⅱ)

2019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9 Annual Report

발행일 2020년 5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 화 02 398 7700

팩 스 02 398 7798

www.kicce.re.kr

편집·제작 유월애 02 859 2278

본 간행물의 무단 판매 및 복제를 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 398 7700 Fax. 02 398 7798 www.kicce.re.kr